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9월 28일)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동국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0월 23일 교내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제85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증서 수여식'을 열고 700여 대학생 불자에게 각 100만원씩 총 약 7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의 주인, 사회의 주인 나아가 세상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글=김민재 기자, 사진=동국대 홍보실

조계종 내년도 예산 909억원 편성

조계종 기획실, 10월 23일 예산안 공개

일반 315억 · 특별회계 593억원 편성

'천년을 세우다' 중점사업 예산 확대

'선명상센터 건립' 예산 6억원 배정

종무기관 개편… 분담금 전년 준해

11월 5일 중앙종회에 안건 부의키로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이 불기 2569(202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909억5825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965억8448만원보다 감액된 수치다.

총무원 기획실은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예산에 따른 주요 종책기조와 내용을 설명했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사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했다"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종단 조직개편을 염두해 현재 예산은 내년 3월을 기준으로 편성됐으며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억585만원 증액(1.2%)된 315억7450만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중앙분담금, 직할분담금, 법인분담금은 2024년 예산에 준해 편성됐고 직영분담금(2023년 대비 5%), 특별분담금(1.1%), 문화유산분담금(2.5%)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1.2%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이 꾸려졌다. 다만 세출 예산안의 예비비는 올해보다 13.7% 증액한 37억8714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용구 총무원 기획차장은 "조직개편 이후 신설 부서와 사업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총무원장 직속으로 구성될 미디어홍보실, 조계종 연구소에 대한 예산은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종무기관 내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59억8473만원(-9.2%) 감액된 593억8375만원으로 편성됐다. 국고 및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비 81억원(국고 54억, 자부담 27억)이 투입된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과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양평 전법회관 건립 불사는 올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다.

신도시시설건립 특별회계에서는 내년부터 서울 봉은사 인근에 건립되는 10·27법난 기념관 불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기본설계로 76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기념관은 2028년 12월 종료를 목표한다.

37대 총무원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도 이어간다. 선명상센터 건립 자부담금 1억원 및 철거비 5억원이 편성됐다. 김용구 기획차장은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에 종단 직영 선명상 센터 건립을 위해 190억 규모 사업이 계획된 상태"라면서 "관할 성북구청과 문체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해당 토지 소유권을 조계종 유지재단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선명상대회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선명상 관련 심포지엄과 컨퍼런스와 함께 지역 연계사업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에 자부담금 9300만원(국제선명상대회 3300만원, 지역연계활성화 6000만원)이 편성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같이 편성한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10월 23일 제36차 종무회의에서 확정하고 11월 5일 예정된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 능원 정사 선출

종의회 ·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서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 능원 정사(서울 행원심인당 주교·사진)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는 10월 2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43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제32대 통리원장 선거를 실시해 능원 정사를 선출했다. 앞서 인의회는 제32대 통리원장 후보에 덕운 정사(대구 시경심인당 주교)와 능원 정사를 복수 추천했다.

신임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진기 52(1998)년 밀각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승원·대명·보정·탑주심인당 주교와 대구교구 직무스승, 통리원 총무부장, 통리원장 직무대행, 제12~15대 종의회 의원, 포항교구청장, 서울교구청장, 현정원 현정위원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종단산하기관으로는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사무처장, 위덕대 전법원장,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이사, 진각복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정교실장과 제16대 종의회 의원, 제38대 현정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취임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사진>가 10월 21일 취임했다.

한 대표이사는 천안북일고와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불교신문사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하며 불교 언론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불교신문사 취재부 차장,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사무국장, 조계종 사서실 사서팀장, 동국대 의료원 대외협력관, (재)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1~2017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 불교담당 행정관을 지내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 대표이사는 "현대불교신문 설립자이신 대행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사부대중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전국민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
- 세상과 나의 평화를 위한 실천 -

'하루 5분 선명상'과 함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선명상 공식 어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 선명상'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 '선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선명상 홈페이지
선명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선명상TV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에 '선명상TV'를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선명상 콘텐츠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태고종, 종조 선양으로 정체성 확립 '잰걸음'

태고종 총무원, 북한산 태고사서 태고보우 국사 탄신 다례재 봉행

운경 종정예하 "禪수행 매진하라"
상진 스님 "태고보우, 韓불교 뿌리"
11월 방중…中불교와 학술세미나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 조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은 10월 23일 북한산 태고사 원증국사 부도탑 일원에서 '태고 보우 원증 국사 탄신 723주년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다례재 직후 대웅보전서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을 통해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섰다.

태고종 총무원은 10월 23일 북한산 태고사 원증국사 부도탑 일원에서 '태고 보우 원증 국사 탄신 723주년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사는 태고 보우 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태고 보우 국사는 이곳에서 주석하며 중흥사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태고사에는 태고 보우 국사를 기리는 탑비와 부도탑이 세워져 있다.

이날 다례재는 태고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탄신을 기리며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봉행됐다. 특히, 태고종 종정예하가 직접 다례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 의미를 더했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태고 보우 국사의 선양과 국사의 유훈에 따라 참선 수행에 매진해줄 것을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운경 스님은 "임제의 법을 이은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은 태고 보우 국사는 교와 선을 모두 겸비한 선지식"이라며 "태고 보우 국사가 깨우친 바와 원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 종도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경 스님은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종단 사미·사미니가 된 초학자들이 왔으니 당부한다. 선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열어라"며 "경(經)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선이 제일이더라. 종도들도 꼭 선수행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법맥의 정통성이 태고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 보우 국사는 한국불교의 적자이자 모든 종단의 뿌리"라며 "부처님의 법맥을 그대로 이어 받아 지금의 종도들에게 전해주신 태고 보우 국사가 종조인 것은 우리 태고종의 홍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1272~1352)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조명·선양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계획도 소개했다. 태고 보우 국사는 1346년에 중국으로 들어가 1347년 절강성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고 의발을 전해 받아 고려 임제종의 적통을 이었다.

상진 스님은 "11월 중국에 태고 보우 국사가 머무르며 인가를 받은 천호암을 순례하며, 그곳에서 중국불교협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종단 총무원은 태고 보우 국사의 가르침과 유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고종을 창종한 대륜 대종사의 부도탑에서 대륜 대종사 다례재를 봉행한 대중들은 종단 발전을 위한 부단한 정진을 발원했다.

다례재 참석 대중은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저희 종도들은 지난 혼란했던 종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합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고 있다"며 "태고종도가 더욱 굳은 의지와 정진력으로 향상일로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새 종책모임 '선우회'

10월 24일, 발족 기자간담회
회장 성로 스님 등 6명 동참
"종도 권익향상 최우선 과제"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선우회'(회장 성로 스님)가 공식 출범했다.

선우회는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발족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종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종단 미래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겠다.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고 종도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종단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사진〉

선우회는 회장 성로 스님을 비롯해 종책위원장 법원 스님, 간사 해량 스님, 제정 스님, 보인 스님, 덕림 스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선우회는 '종단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되겠습니다'라는 창립문을 통해 "종단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우회는 종도들의 권익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종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중앙종회에 반영되고 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종도들이 종단 내에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직한 포교종책 수립에 앞장설 것도 약속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발맞춰 부처님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 종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대인들이 불교 가르침을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혁신적인 포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이들은 "종단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종단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종교계 나서 의료대란 중재 역할"

종지협, 10월 22일 의협회장 등
의료 단체 대표와 간담회 가져


10월 22일 의료단체 대표들을 만난 진우 스님은 종교계가 나서 의료대란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사진=조계종 홍보국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2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 단체 대표와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종지협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고 인간 대 인간 생명 대 생명으로 종교계가 논의, 중재를 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이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됐다"면서 "정부와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중재를 해보면 좋겠다. 의료계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 관계자들은 종교계가 적극 나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먼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의료대란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교착상태"라며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종교계 어르신들이 정부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현장,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해 큰 반발을 샀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사회와 정부, 교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을 청취한 진우 스님은 "정치권 의견을 받고 의협 쪽 의사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접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0여 분 공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종교계가 준비 중인 중재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우 스님은 "오늘 의료계의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으니 정부안에 대하여 상충되는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검토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안을 제안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들도 이에 공감하며 "좋은 중재안을 기대하겠다"고 뜻을 함께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 살리는 하루, 그린붓다로 함께"

비구니회, 10월 19일 법룡사서
탄소비움 자비채움 '그린붓다데이'



부처님 지혜와 자비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하길 발원하는 깨우침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0월 19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2024 탄소비움 자비채움 환경대축제 그린붓다데이'를 개최했다.〈사진〉 축제는 사회적 의미의 지구환경운동과 전법의 의미를 담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 등 환경에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인드라망과 같은 인연 속에서 환경 파괴 악순환의 고리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일체 생명을 귀히 여겨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생명을 위한 그린붓다들의 발원문'을 통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됨을 깊이 자각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생명을 수호하는 사명을 드높일 것을 서원했다.

법룡사 경내와 마당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점심 공양에는 '청정한 음식, 쓰레기 없는 공양'을 위해 한그릇 음식으로 비빔밥이 제공됐다. 환경콘서트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로 구성된 '블루로터스'의 식전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수현
종무부원장 김종숙
부 원 장 이영숙, 이향순
총 무 강미화 대 외 박봉희
재 무 이선덕 문 화 이춘선
봉 사 권춘자 웰다잉 김미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

사찰림연구소 출범…"사찰림 가치 증진 추진"

조계종, 10월 22일 출범식 개최
한국불교 첫 사찰림 연구기관
대표이사에 원명 스님 임명돼
사찰림 정책 제안, 운영 지원
심포지엄서 활용 방안 논의도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10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같은 날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사찰림! 미래천년을 내다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 이래 첫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와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는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찰림연구소는 불교계 유일한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으로 2009년 '한국사찰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다. 이후 산림청의 인가를 받아 초대 이사장 종수 스님 등이 사찰림의 보전·활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3년 11월 종무회의를 통해 올해 2월 조계종 산하 종령기구로 채택됐다.

사찰림연구소는 출범 이후 사찰림 현황을 파악한 뒤, 연구·교육·사업·협력 분야에 걸쳐 사찰림이 가진 전법수행·공익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조망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림 실태조사 및 DB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 컨설팅 △사찰림 활용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찰림 해설사 양성 △사찰림 경관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진우 스님은 "한국 사찰림은 자연문화유산의 보고로 전통 경관을 지키는 안식의 공간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전해야하는 미래의 터전"이라며 사찰림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앞으로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연구, 정책 활동에 진력을 다 하겠다"면서 "사찰림이 미래 천년에도 온전히 보전되고 그 가치를 발휘하도록 사부대중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사찰림연구소가 오랜 시간 나무와 숲을 수호하고 많은 문화유산을 보전해온 사찰림의 가치 연구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산림청 역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의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사찰림연구소 대표이사에 원명 스님을, 연구소장에 오충현 환경생태학 박사를 임명했다.

사찰림연구소 대표이사이자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은 "사찰림은 국립공원 지정,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생태적인 보전이 이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찰림으로 변모해야한다"며 "사찰림연구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시대적 대응에 발 맞춰 사찰림의 가치 증진과 공익적 기여를 위해 정책 연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은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사찰림이 가진 전법수행 공간과 사회 공익가치 실현 공간으로서 가치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 이후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림연구소의 첫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국의 사찰림! 미래천년을 내다보다'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와 장영환 사찰림연구소 사무차장이 주제 발표했다. 이들은 사찰림의 역사와 현황을 짚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김용관 남부지방 산림청장, 홍석환 부산대 교수, 임주환 숲과문화연구회장, 남태헌 사찰림연구소 이사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스님·재가, 종단 추진 불사에 후원 잇달아

자광 대종사, 심경·함현 스님 등
천년을 세우다·아미타요양병원에

종단이 추진 중인 사업 '천년을 세우다' '승려복지기금' 등에 불교계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10월 24일 승려 노후 복지를 위해 아미타요양병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대종사는 "얼마 전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의 어려움 해소와 발전을 위해 연금을 모은 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감사를 전하며 "노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잘 갖춰 종단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사진 왼쪽)과 개그맨 윤성호 씨가 승려복지를 위해 기금을 쾌척했다.

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한 심경 스님도 종단 불사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다. 10월 23일 진우 스님을 예방한 심경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2007년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법회 후 바로 세워야겠다는 원력을 가졌는데, 종단 차원에서 바로 세우기 불사를 진행해 기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앞선 10월 21일, '2024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함현 스님(청주 관음사 회주)은 상금 전액을 종단 불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쾌척했다. 함현 스님은 "부족하지만 문학상을 받게 돼 종단 불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달한다"면서 진우 스님에게 저서 〈머리 한번 만져보게나 극락 간다네〉를 전달하기도 했다.

MZ세대 사이에서 'Hip' 불교 신드롬을 일으킨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은 10월 21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10월 23일에는 동국대를 방문해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본인을 '뉴진 스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윤성호 씨는 "그릇이란 늘 넘치지 않게 비워야 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로터스월드 ·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익명의 후원자 정성 모여 정수시설 2·3호기 잇따라 완공

맑은 물 한 잔이 미얀마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전한 따뜻한 마음 덕분에 로터스월드·현대불교신문의 정수시설 2호기와 3호기가 잇따라 완공된 것. 아이들은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을 되찾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정수시설 2호기는 올해 9월 말 미얀마 바고(Bago) 타운십 지역에 위치한 알레고 공립학교(B.E.M.S A Lal Gone School)에 조성됐다. 알레고 공립학교에는 현재 239명이 공부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는 1000가구, 5000여 명의 주민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공립학교·승가학교에 설치
재학생 총 300여 명 혜택
인근 마을주민도 함께 사용

이 지역은 지하수에 철분 함량이 높아 수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이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태풍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이 늘어나고, 오염물 유입으로 지하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식수 조달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 완공으로, 수인성 질병에 빈번히 노출됐던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변 마을주민들도 정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수혜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수시설 3호기는 양곤에 있는 마하따다마떼이빤 승가학교(Mahar Thatama Thate Pan Nunnery)에 지어졌다. 비구니 승가학교로, 47명이 재학 중이다. 이곳은 양곤 시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경계에 자리한 탓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 별도의 정수시설도 없어 우물이나 빗물, 연못의 물을 항아리에 저장해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사용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하따다마떼이빤 승가학교는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거주 인원은 적지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승가고시에 지원하는 지방 출신 비구니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3개월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1회당 100여 명이 고시를 준비한다.

이젠 3호기 정수시설 준공으로 승가학교의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재학생과 승가고시 지원자, 주변 4000여 가구 주민들까지 언제든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향후 정수시설 관리 운영은 각 학교 교장이 맡아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교환을 진행한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두환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장은 "미얀마에는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아이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문의 : 로터스월드(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미얀마 학생들이 새롭게 조성된 정수시설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과 기도는 희망의 미래불교를 만드는 불사입니다.

● 순례 안내 :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기념품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스님이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 열암곡 순례정보 ▶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 우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문의 : 02-6273-0108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종단 차원 승려 노후 복지시설 마련돼야”

수경 스님, 정책토론회서 주장
승려복지회 · 비구니회 공동주최
승려 노후 복지 미비사항 지적
종단 차원 요양시설 마련 제안
“일원화된 요양시설 · 제도 필요”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10월 23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승려 노후 주거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승려복지 실현을 위해 종단과 교구본사의 협력도 강조했다.

“종단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종단 차원에서 일원화된 승려 요양시설과 제도 등의 마련을 통해 승려 노후 주거복지를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이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가 공동주최한 ‘승려 노후 주거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조계종단 노후 승려주거복지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경 스님은 총무원과 승려복지회를 비롯한 종단이 주체적으로 스님들의 노후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헌 9조 1항에서는 “조계종 스님은 독신으로서 가족부양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지만 정작 스님들의 노후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종단의 방임적 태도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종단 내에도 노령의 스님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 혹은 환경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평생 출가수행자이자 종단의 일원으로서 수행과 전법에 헌신한 스님들의 노후를 종단과 승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계종 통계(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종단 소속 승려 1만1394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3438명으로 전체 30.2%에 이른다. 이것은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초과하는 수치로 승가공동체의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현재 몇몇 교구본사에서 재적 중인 노스님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지만, 교구본사의 환경 변화에 따라 거주지 관리 미비 등 상황 변동의 폭이 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경 스님은 “교구본사 차원에서 노스님들을 위해 방사를 제공하지만 소수 인원 대상이라 폐쇄적이고, 이 때문에 주지스님 혹은 교구장 스님이 교체될 경우 노스님들의 주거복지 환경이 뒤바뀌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경 스님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종단 차원의 일원화된 승려 노후 주거복지 시설 확충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방안으로 종단의 승려 복지 방향성과 사업 재정립, 관련 법 조항에서 종단의 역할 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승려복지회가 직접 관리하는 요양시설, 대중수행처 등을 설립해 교구본사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한 스님 구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현재 선도적인 교구본사의 사례를 참고해 종단이 승려 노후복지의 정책적 뒷받침을 일구면 노령의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WISE캠, ‘영캠프’ 법석 연다

11월 12일 1300명 수계 법회
불교동아리 회원 직접 기획
“불교, 문화 조화된 축제로”

동국대 WISE(이하 와이즈)캠퍼스 재학생 1300명이 합동수계 받는 대규모 법석을 연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류완하)가 11월 12일 오후 3시 와이즈캠퍼스 문무관에서 ‘2024 WISE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이하 영캠프)를 개최한다.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원력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지원이 더해져 시작된 프로젝트다.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행사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WISE캠퍼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을 만들어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이다. 대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불교와 페스티벌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1부 수계법회, 2부 어울림한마당, 3부 문화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수계법회는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법인 이사·감사스님, 정각원장, 교수·강사 및 학인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들이 대학생들에게 연비를 내릴 예정이다. 국악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더불어 장엄한 예불의식으로 펼쳐질 수계법회를 통해 1300명 대학생들은 전통불교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청년 불자로 거듭나게 된다.

2부 어울림한마당에서는 학생기획위원단이 기획하는 학생들의 공연과 이벤트가 열리고, 3부 문화 공연에는 가수 하하와 뉴진 스님 디제잉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한편,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불교동아리들은 지난 9월 불교문화대학 ‘부루나’를 시작으로 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했으며, 10월 30일에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불교동아리 ‘심우회’가 창립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Z불자 가수 발굴한 ‘제1회 전국사찰노래자랑’

10월 19일 화계사 설무대서…김영익 연극배우 최우수상 수상

“화계사와 함께하는 전국~사찰노래자랑~!”

선선한 가을바람 넘실대는 10월 중순,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에 신나는 노래와 관객들의 박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계사가 주최하고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이 주관하는 ‘제1회 전국사찰노래자랑’이 10월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렸기 때문.〈사진〉 이번 행사는 사찰신도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젊은 세대 불자 가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예인전법단장 우봉 스님, 포교부장 남전 스님, 화계사 선덕 견향 스님, 총무국장 도준 스님, 교무국장 청강 스님 등 화계사 대중스님들과 임혁 연예인전법단회장, 이한규 연예인전법단장 사무총장, 장정화 연예인전법단 자문위원장 등 연예인전법단과 화계사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우봉 스님은 “오늘 화계사에서 전국사찰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노래자랑은 불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찰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행사가 열렬한 호응 속에 원만하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도 “포교가 잘 이루어지려면 사찰, 대중, 문화가 어우러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처음 열리는 ‘전국사찰노래자랑’이 바로 그런 자리다. 앞으로 정례·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13일 화계사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예심이 치러졌다. 총 지원자 47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18명이 본선으로 진출, 오늘 무대에 서게 됐다. 특히 본선진출자 중에서는 2030 청년불자 가수들이 발굴돼 눈길을 끌었다.

최우수상(포교원장상) 수상의 영예는 가수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부른 김영익(28, 연극배우) 씨가 안게 됐다. 김 씨는 “힘들고 지치는 무명시절을 이겨내고 좋은 추억을 쌓고자 지원했다”며 “오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불교를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재 기자

조계사, 소통 공간 ‘베이커리 조’ 개업

10월 23일, 개업식 개최
“시대에 맞게 공간 변화”



조계사는 10월 23일 경내 관음전 건물 1층에서 ‘베이커리 조’ 개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올해 5월 국숫집 승소의 영업을 종료하고 불자와 일반 시민을 위한 쉼터 공간을 고민하던 중, 보다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준비하게 됐다.

베이커리 조에는 제빵과 커피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8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한다. 이곳에서는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으로 추출한 다양한 커피, 각종 전통차와 음료, 직접 구운 크루아상 등을 맛볼 수 있다. 빵의 종류는 점차 몽블랑 빵, 스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은 조계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경사스러운 날 ‘베이커리 조’ 개관식까지 더해지니 더욱 의미가 깊다”며 “시대에 맞게 국수에서 커피와 차, 빵으로 변화하게 됐다. 도반들과 담소도 나누는 편안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커리 조의 수익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김내영 기자



국화 핀 조계사서 어린이 그림 대결

조계사는 10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3회 조계사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 접수를 받은 5세부터 13세까지 ‘꿈나무 화가’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주제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와 ‘부처님과 나’. 500여 어린이들은 형형색색 국화로 옷을 갈아입은 부처님 품 안에서 실력발휘를 하며 즐거운 휴일을 만끽했다. 시상식은 11월 3일 예정돼 있다. 임은호 기자

대불청 33대 중앙회장에 이길수 전 부회장

10월 20일 대의원총회서
“자만하지 않고 임하겠다”



KYBA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에 이길수 건축사사무소 혜연 대표〈사진〉가 선출됐다.

KYBA 대의원회(의장 이시우)는 10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길수 대표를 제33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대의원 총원 115명 중 유자격 대의원 85명 가운데 현장에 55명이 참석, 성원됐다. 이길수 중앙회장 당선자는 찬성 52표, 반대 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재길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이길수 중앙회장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자만하지 않고 회장직에 임하겠다”면서 “중앙회장 자리의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겠다.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대불청을 위해 그리고 법우들을 위해 쓰겠다. 지켜봐달라”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바른 수행 위해서는 ‘선지식’ 가까이해야”

10월 20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서
영화 선사, 4주간 방한 회향 법문

“선화 상인께서 제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선지식(善知識)’을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위앙종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영화 선사〈사진〉가 10월 20일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 설법전에서 대중들에게 선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했다. 이날 법회는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의 초청으로 열렸으며, 4주간 영화 선사의 방한법회를 회향하는 법석이기도 했다.



‘미국 위앙종의 정수’를 주제로 진행된 법문에서 영화 선사는 “실수를 피하고 본인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향을 알려주고 지켜봐줄 스승이 없다면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禪)에 대한 가르침도 이어졌다. 영화 선사는 “선은 말과 언어가 끊긴 곳에 있다”며 “달을 보려면 손가락이 아닌 달을 직접 봐야 하는 것처럼, 선수행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언어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선의 언어도단(言語道斷)은 선지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됐다. 영화 선사는 “선지식은 언어가 아닌 ‘경험’으로 대중을 지도한다”며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세라티 차 매장으로 직접 데려가야 한다. 선지식은 제자를 ‘말이 끝나는 지점’, 깨달음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라고 설했다.

끝으로 영화 선사는 자신이 선지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을 도울 때를 살피라”고 조언했다. 선사는 “남을 도울 때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이 더 크다면 당신은 변명의 여지없는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수행법이 다를 뿐 위앙종이든 조계종이든 같은 부처님 법”이라며 “영화 선사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미롭게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국제포교사회, 외국인 유학생 템플스테이

10월 19~20일 낙산사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스님)가 10월 19~20일 양일간 양양 낙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유학생들에게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템플스테이에는 14개국 2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사찰 예절 △스님과의 차담 △108배 △염주 만들기 △소원지 작성하기 △대종 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김민재 기자

진관사 수륙재, 위로와 희망 전하다

개건 626주년 국행수륙재 봉행돼
9월 1일 시작, 10월 19일 회향식
순직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추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선언
진우스님 “세계인의 유산이 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관사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2024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륙재 낮재에서 어산범패스님들이 천수바라를 하는 모습.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개건 626주년을 맞아 설행한 2024년 국행수륙재(국가무형문화유산)가 회향됐다. 이 자리에서 진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선언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진관사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수륙재 개건 626주년 기념 2024 진관사 수륙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올해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우리 모두를 위해’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49일간 설행됐으며, 7번의 초청 법문을 통해 사부대중은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진관사 사부대중은 수륙재 기간 순직공무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으며,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호국의 꽃인 무궁화를 전통 지화(종이꽃)로 만들었다. 진관사 사가독서당에서 수학했던 집현전 학사 6분의 추모재도 올렸다.

회향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여해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집현전 학사, 전쟁 희생자 등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특히 이날 회향식에 앞서 진관사는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공식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임돈희 진관사 수륙재 세계무형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동국대 석좌교수)은 진관사 대중을 대표해 선언문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진관사는 626여 년 동안 국행수륙대재를 행하고 있다. 조선 왕실이 나서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고 상처받은 백성을 위로하는 축제”라면서



순직 경찰관들을 기르는 위패가 전달되고 있다. 이날 수륙재에서는 순직 제복공무원을 기리는 축원 등이 이뤄졌다.

“이제 지구촌화하는 세상에서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고 상처받는 인류를 위해 축제를 행하고자 한다. 이에 진관사 수륙대재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 시키어 위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진관사 수륙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고 국가유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적 고유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수륙재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수륙재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통해 세계인의 문화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질병과 전쟁,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무주고혼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국행수륙재 봉행은 그 자체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후원기금 3500만원과 쌀 3000kg을 전달하고 있다.

기대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행수륙재 정신을 되새겼다. 법해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 봉행 정신은 종교와 인종 그리고 이념을 넘어 대립과 분쟁에서 벗어나는 소통과 화합의 진정한 가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우리 모두를 위해’라는 주제로 자비 대도량의 문을 열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한다는 자리이타 정신을 마음에 화두처럼 새기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륙재 첫 법문을 ‘나라의 별이 되신 분들을 위한 갑진년 축원기도’로 시작됐다”면서 “묵묵히 공무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신 애국자들을 위한 축원의 자리는 삶의 환희로 가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 내외빈들은 일주문 밖 시련소로 이동해 태조 이성계와 순국선열 등의 영가를 맞이 하는 시련의식을 진행했으며, 영가를 경내로 모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등 참석대중이 시련의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차를 올리는 대령, 영가를 청정케 하는 관욕의식이 이어졌다.

점심공양 이후 이어진 수륙재 회향 낮재는 신중들을 불러 도량을 수호하는 신중작법, 영산회상을 표현한 괘불을 이운해 도량에 거는 괘불이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 설법을 재현한 영산작법 의식이 진행됐으며,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10월 20일 이어진 수륙재 회향 밤재는 수륙연기, 사자단, 오로단, 상단소청, 중단소청, 하단소청, 상단권공, 중단권공, 하단시식, 봉송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가 조상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삼각산 진관사 경내에 총 59칸의 수륙사를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 의례다. 수륙재의 정점은 마지막 칠재로 낮재(19일)와 밤재(20일)로 나누어 이틀 동안 지낸다.



“佛法 잘 배워 어리석은 마음 개선하라”

성파 대종사 수륙재 회향 법문
“수륙재 설행과정 자체가 법어”
땅 가물 듯 정신 피폐해져 문제
“참여 공덕으로 ‘九龍’이 되라”

“국가무형문화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조선 왕실 차원에서 설행했던 불교의례라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올해도 49일 전부터 모든 사부대중이 지극 정성으로 재(齋)를 봉행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하게 법문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설행해온 과정 자체가 법문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10월 19일 서울 진관사에서 봉행된 ‘2024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 낮재에서 증명법사로 법상에 올라 진관사 국행수륙재 설행 공덕에 대해 설했다.〈사진〉

성파 대종사는 조선시대 진관사에서 열렸던 국행수륙재를 복원·재현해 매년 봉행해 온 진관사 대중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방세계의 시방(十方)이란 동·서·남·북 사방(四方)과 북서·남서·남동·북동 사유(四維)에 상·하를 포함해 10가지 방향을 나타낸다. 모든 세상의 유주무주 고혼을 다 불러서 이고 득락하도록 하는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인류사회에 복락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행사”라고 상찬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나 마약, 음주 등 사회에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지적한 성파대종사는 “이런 문제가 배고파서 생기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신이 피폐해져 생기는 문제들이다. 현대사회 사람들의 정신은 가뭄으로 인해 갈라진 땅바닥 마냥 말라서 갈려졌다”고 경책했다.

그러면서 성파 대종사는 〈발심수행장〉의 ‘누구나 배고프면 밥을 먹어 주린 창자를 채울 줄은 알지만,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共知喫食而慰飢腸 不知學法而改癡心)’는 구절을 인용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울 것을 당부했다.

대종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서 채울 생각은 하지 못한다”면서 “여러분은 불법(佛法)을 잘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간에 사건사고가 많다. 너무 바깥만 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의 발 밑에 엉덩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며 ‘조고각하(照顧脚下)’의 가르침을 전했다.

성파 대종사는 두 눈·콧구멍·귓구멍 등 인체의 아홉 구멍을 설명하며 “동양인도 흑인도 백인도 아홉 구멍을 잘 써야 한다. 아홉 구멍을 잘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했다.

“동양에서 아홉 용, 구룡(九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개천에 엎드린 이무기가 되겠는가, 여의주를 얻어 구만리 장천(長天)을 호령하는 용이 되겠는가”라고 질문한 성파 대종사는 “오늘 국행수륙재에 참석한 대중은 구룡이 될 수 있는 인연공덕을 얻었음을 알라”고 설했다.

신중일 기자





달빛 아래 '걷기명상'…평화를 기원하다

범어사, 10월 17~18일 청룡동 및 경내 일원서 개산대재

시민과 함께 묵언 명상걷기 체험
세계평화 기원하며 싱잉볼 명상도
법요식, 의상대사 창건 뜻 되새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개산대재를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개산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범어사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제1346주년 개산대재 - 화엄의 세계를 만나다'를 봉행했다.

개산대재는 의상대사가 화엄십찰로 창건한 범어사의 화엄사상을 기리고 시민들과 명상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먼저 범어사는 10월 17일 부산 청룡동 일원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달빛 명상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개산대재를 기념하며 전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신도, 지역민들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불을 밝힌 LED 초를 손에 들고 묵언한 채 고요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둥근 달은 구름 낀 하늘에서 어두운 곳을 지날 때 마다 무명을 밝히듯 비췄고 선두에선 스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참가자들은 호흡을 알아차리며 걸음을 옮겼다. 보제루 앞 마당에 도착하자 명상을 알리는 싱잉볼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선명상을 안내하는 방장 정여 스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정여 스님의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문'에 동참하며 손을 모으고 "원효 선사의 화쟁 사상으로 인류가 화합하고 다툼이 없는 세계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했다.

범어사에 진행한 달빛 명상 걷기대회는 경동아파트 입구부터 보제루 앞 마당까지 2.2km를 걸었고, 싱잉볼 명상 및 다양한 공연 관람도 이어졌다.


범어사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제1346주년 개산대재 · 화엄의 세계를 만나다' 를 봉행했다.

이어 개산대재 법요식은 10월 18일 경내 보제루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원효대사의 창건 정신을 기리는 법요식에는 방장 정여 스님, 주지 정오 스님, 강주 용학 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이헌승 국회정각회 회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등이 동참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1346년이라는 오랜 세월과 전통을 이어온 범어사는 때묻거나 물들지않고 굳건히 이 자리를 지켜왔다. 오고감이 없는 이 마음을 비워놓고 연꽃처럼, 가을 국화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야 한다"며 "이것이 화엄이며 화쟁이다"고 법문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앞으로 범어사는 여러 생의 모든 인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따를 수 있도록 법등을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聯, 호국사상 되새긴 팔관회 봉행

10월 19일~21일, 경내 일원
미래세대 수계의식 봉행
백희가무로 호국사상 고취
전통 팔관회 의식 재현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경내 일원과 구 박물관 옆 특설무대에서 '2024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19일에 미래세대에게 불교 가치를 전하기 위한 '선재동자 수계법회 및 마정수기'를 개최했다. 선재동자 수계법회에서는 선재동자 어린이 20명이 계를 받았으며 마정수기 법회에서는 영유아 어린이들이 관정의식에 참여했다. 마정수기 법회에서 회장 정오 스님은 영유아 에게 관정의식을 진행하며 축원하고, 스님의 가사로 제작한 낙자와 염주를 목에 둘러주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경내 일원과 구 박물관 옆 특설무대에서 '2024 팔관회' 를 봉행했다.

20일에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가 봉행됐으며, 21일에는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팔관재계 수계법회로 마무리됐다. 위령재는 군 관계자 및 보훈 단체 관계자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으며, 수계법회는 고증에 따라 재현한 의식으로 진행됐다. 3화상은 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이 담당했으며 16증사가 법좌에 올라 수계식을 증명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팔재계를 수지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맑고 고결한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국가의 안락은 개인의 청정한 계행에서 비롯된다는 선조들의 믿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적인 갈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관회 정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길을 찾는다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훈민정음 이전 문자생활 조명

10월 20일 추계학술대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0월 20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2024년 영축총림 통도사 추계학술대회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향찰·이두·구결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사진〉

허인영 인하대 조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불교 차자표기법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양혜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선전기 진언류 언해의 역사적 의미-고려후기 이래 진언 표기를 중심으로'를, 하정수 동국대 연구교수는 '고려시대 석가탑 묵서지편과 공문서의 차자표기-인명과 물명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한글 발전에 영향을 끼친 불교의 역할을 조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 등이 나서 심도 있는 학술토론의 장을 펼쳤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제 23회 장학금 전달

10월 20일, 孝경로잔치도

부산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가 10월 20일 경내에서 '제23회 장학금 전달식 및 효(孝)경로잔치를 봉행했다.〈사진〉

방송인 MC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 경주 무량사 조실 원명 스님, 일심회 회장 혜정 스님, 김대식 사상구 국회의원 등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했다.

장학금은 대덕여고 3학년 임수현 학생 외 20명의 학생에게 각 30만 원 총 6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라며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을 금강석과 같은 보석같은 존재로 만드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강용창 회장, 경찰청장賞 수상

제79회 경찰의 날 행사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장이 제79회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사진〉

행사는 10월 21일 사상경찰서 5층 누리홀에서 진행됐으며, 개식사, 순국 경찰관에 대한 묵념, 유공자 포상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강용창 회장(사상경찰서 경리 경감)은 "우리 경찰청 동료 직원분들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하고 무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 아울러 경승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경찰청불자회의 화합과 내실을 다지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부산, 창립 18주년 어울림 마당

10월 19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10월 19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리갤러리 및 문화홀에서 '라온(LA·溫)어울림 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관심과 격려를 보낸 후원자를 위해 열렸으며 일일찻집도 진행돼 난치병 환우 치료비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의 장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 이어 축하공연은 홍법사 동림합창단, 플룻 및 피아노 연주, 음성공양이 마련됐다. 2부 순서에서는 본부장 심산 스님과 함께하는 '나눔 토크(Talk)'가 열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주사, '百味百樂' 향연 펼치다

10월 18일 1472주기 개산대재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가 10월 18일 경내 일원에서 '1472주기 개산대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다양한 사찰음식과 세계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로, 백 가지 맛과 즐거움이 담긴 '백미백락(百味百樂)' 음식축제가 됐다.

지장사, 용화사, 탈골암, 월명사에서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선보였으며 태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이 고국의 음식을 전시·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충주 미륵세계사, 미륵대불 점안

10월 19일, 새로운 도약 다짐



충주 미륵세계사(주지 법초 스님)가 10월 19일 경내 미륵대불 앞 기도단에서 '미륵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점안법회는 석불과 석굴의 정비를 위해 10년간의 보수가 끝난 뒤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법초 스님은 "점안법회를 계기로 정진해, 미륵세계사가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미륵대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봉려관불교硏, '근대 제주불교사' 조명

11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달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테크노파크 10층 1001호 세미나실에서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Ⅳ'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일제강점기 호남 부호 국채웅의 생애와 사회적 기여'를,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의 왜곡상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민순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봉려관 스님과 대흥사의 교류'를 발표한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은 "왜곡된 제주불교사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바른 역사가 정립될 때 비로소 참신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불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010)9185-1004 신중일 기자

무량사, 설잠 스님 기리는 다례재 봉행

10월 20일, 극락전 앞마당서



부여 무량사에서 입적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됐다.〈사진〉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가 10월 20일 경내 극락전 앞마당에서 설잠 스님의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 앞서 산신재도 함께 설행됐다. 최종대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 지역단장 및 포교사들과 참여대중은 이운 의식에 함께하며 전통의식을 재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파계사, 입시생 위한 수계법회

수험생 · 학부모 대상 100여 명



대학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합동수계법회가 열렸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주지 현봉 스님)는 10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주지 현봉 스님을 수계법사로 총무 명진 스님을 인례사로 진행됐다. 수계를 받은 수험생과 학부모 100여 명은 부처님 법을 따르는 진정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청곡장학재단, 예비군승에 장학금 지원

법원 스님 "불법홍포 씨앗 되길"



병원 운영금을 사회에 환원해 온 청곡문화장학재단이 미래 예비군승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청곡문화장학재단(이사장 유영화)은 10월 23일 보라매법당 대웅전에서 예비군승 지홍 스님, 원묘 스님, 보광 스님, 금곡 스님, 화산 스님에게 각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오늘 지급된 장학금이 훌륭한 씨앗이 되어 불법을 홍포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금산사, '제2 깨달음 사회화' 선언하다

개산 1425주년 개산대재서
슬로건에 '지금 머해?' 정해
월주 대종사 유훈 계승 의미
개인, 인류에 실천 화두 던져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유지인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선언을 하고 있는 대중들. 사진 왼쪽부터 한광수 신도회장, 응묵 스님, 평상 스님, 도법 스님, 주지 화평 스님.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10월 19일 개산 1425주년을 맞아 봉행된 개산대재에서 '제2 깨달음의 사회화'를 선언했다.

'깨달음의 사회화'는 지난 2021년 입적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평소 주창하고 실천한 대사회운동으로, '제2 깨달음의 사회화'는 후학들이 대종사의 유훈을 이어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졌다.

금산사는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슬로건으로 '지금 머해?'로 정했다. 자기 스스로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질문을 통해 불안과 분노, 욕심에 관한 마음의 문제를 다루며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인류 멸종위기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금산사 사부대중은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선언문을 나에게 묻는 말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나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순간순간 지족하며 살겠습니다'를 화두로 던졌다. 사피엔스(인류)에게 묻는 말로는 '덜 입고, 덜 먹고, 덜 쓰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에게 탄소중립 실현을 촉구하겠습니다'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선언했다.

개산대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금산사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호남 제일 대가람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개산대재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본성을 다시 찾아가는 첫걸음이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깨달음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의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자비의 마음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제언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인심은 늘 새로운 곳에 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대중이 금산사 개당을 기념하는 일은 대중들 모두가 밝은 지혜의 안목과 만개의 몸으로 추호의 막힘도 없이 자유롭게 방편을 쓰는데 있다. 동시에 인내의 땅인 사바세계에 함께 사는 벗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과 고락을 나누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범부의 감정과 분별심만 놓아버리면 대도가 하나가 된다"며 "절차탁마의 방편도 놓아버리고 끌어당기는 새로움에 지나지 않으니 인심은 늘 방편이 자유로운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설했다.

금산사 1425주년 개산대재는 대적광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회원스님들의 집전으로 금산사 역대조사 다례재, 개산대법회, 모악산 금빛가요제, 만등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태고종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봉행

사미 30명, 사미니 8명 배출


태고종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법회에서 사미 · 사미니스님이 종단 수행자의 상징인 홍가사를 수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출가수행자 사미 30명과 사미니 8명, 총 38명의 출가수행자를 배출했다.

10월 21일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금강계단에서 봉행된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은 종사이운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선조사스님들에 대한 묵념, 삼사와 칠증사 및 내빈 소개, 수계산림 경과보고, 수계산림 우수자 표창, 수계산림, 체발, 수계증 수여,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계산림법회는 삼사에는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교수아사리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갈마아사리 호법원장 혜일 스님이 증참했으며, 교육원장 재홍 스님, 부원장 능혜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경기북부종무원장 경월 스님, 전 해외교구장 종매 스님, 정수원장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이 칠증사로 나서 사미십계를 설하고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계를 받고 예비스님이 된 수계자들은 연비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고 참된 출가수행자로서 전법과 중생교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산림법회에서 최우수상 성문, 우수상 원각, 모범상 혜암, 봉사상 도우·정우, 인욕상 혜명 행자가 수상했다.

이날 사미계와 사미니계를 수지한 38명의 예비스님들은 지난 9월 20일 태고종 교육원인 정수원에 입소해 31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 및 불공의식 습의, 종지종풍과 종단사 교육, 울력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수계산림에는 삼사와 칠증사외에도 총무원의 소임자 스님들과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교구장 스님들과 수계제자들의 은사스님들과 가족들이 동참했다. 특히 이날 수계산림법회에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향목, 향선 행자가 출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설정 대종사, '만공 선사 친필 휘호' 기증

10월 21일 임회서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에 기증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대종사는 10월 21일 열린 덕숭총림 임회 제59차 정기회의에서 '만공 선사 친필 휘호' 족자를 공개하고 수덕사 근역성보관에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설정 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근역성보관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이 참석했다.

경오년에 쓰여진 만공 선사의 친필 휘호에는 〈화엄경〉 등 각 경전에서 발췌한 글이 쓰여져 있으며, 족자 끝에는 '만공 선사 필'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설정 대종사는 만공 선사가 지녔던 호신불 1점, 바미얀 출토 작은 불상 1점도 함께 기증했다.

설정 대종사는 "귀한 문화유산을 근역성보관에 기증해 대중이 함께 친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정 대종사는 이날 임회에서 덕숭총림 발전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한편, 수덕사 근역성보관은 기증받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금어 일섭 스님 조성 괘불 만나다

송광사, 10월 19일 괘불재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10월 19일 대웅전 앞마당에 '제4회 조계총림 송광사 괘불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 모셔진 송광사 괘불은 한국전쟁으로 소실한 괘불을 대신해 1961년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금어 일섭 스님이 조성한 괘불로, 지난 2021년 대중에게 첫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조계총림 수좌 현묵 스님은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수행하고 체험을 해야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제자들은 오직 일념으로 순간순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10월 17일 전통문화전수관서



마이산 탑사와 (사)붓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진성스님)는 10월 17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일반단체가 추천한 지역 어르신 50명을 초청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마이산 탑사, (사)붓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축하하는 케익을 전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는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 이불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야에 불교 전한 '가락국사' 추모재 봉행

10월 17일, 김해 수릉원서



(사)가야불교문화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10월 17일 김해 수릉원에서 열린 '2024 세계유산 가야축제'에서 가락국사 장유보옥 대화상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추모재는 가야가 최초의 불교 도래지임을 알리고 전통 불교문화를 승화시켜 김해 지역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추모재를 통해 한국의 문화 문명, 역사 인식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파당 종수 대종사 8주기 추모다례재

10월 22일 김해 화장사서



김해 화장사는 10월 22일 경내 화장보전에서 '한파당 종수 대종사 8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사진〉

한파당 종수 대종사는 지난 1992년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를 설립해 범패강원을 운영하며 200여 명의 후학을 양성했다. 2014년에는 봉화산 정토원과 함께 '중부경남 불교교양대학'을 만들어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쳤다.

능인종 총무원장 수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종사의 8주기를 맞아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수행·정진에 힘 쓰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강진 백련사 사찰음식 전시·경연대회

10월 19일 선차문화관서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10월 19일 경내 선차문화관 만경루에서 '제4회 차(茶)와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남도 음식과 사찰음식의 본고장인 강진 백련사를 알리기 위한 의미로 개최됐다. 주지 설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에서는 천년이 넘은 세월 동안 마음의 안심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차와 음식으로 나와 남을 평안케 했다"며 "우리 음식 문화를 즐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화사, 미륵양대탑 건립공덕비 제막

10월 20일 경내서 봉행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 스님)는 10월 20일 경내에서 '미륵양대탑 건립공덕비 제막 및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미륵불 앞에 조성한 미륵양대탑은 코끼리와 사자 기단 위에 정림사지5층석탑을 모형을 올린 2개의 탑이다. 탑 조성에 동참한 대중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공덕비를 제막한 것이다.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참대중에게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음악, 클래식 들리는 성주사 음악회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서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교음악과 클래식의 조화'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성주사 종각의 사물연주로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가릉빈가합창단의 음성공양, 김해신포니에타(지휘자 이효상) 오케스트라 연주, 바리톤 나한규, 소프라노 오예은의 공연에 이어 클라리네티스트 이소연의 공연, 남성 크로스오버 중찬단 '루체로' 등의 공연이 선보여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금선암 제4회 금선 보은문화제

10월 20일 완산체육공원서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이 효문화를 계승·선양하기 위한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금선보은문화제는 10월 20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뇨엔, 韓日 3원 동시 개광명 법요 봉행

〈開光明〉

眞如 가르침 전하는 포교 도량
1987년 제주도에 포교원 설립
부산 · 서울 가정집서 신행 생활
40여 년 신행 결실 '개광명법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종교법인 신뇨엔이 한국과 일본 소재 3원 동시 라이브로 '개광명 법요'를 봉행했다.

종교법인 신뇨엔이 여법한 도량으로 거듭나는 의식인 개광명(開光明) 법요를 봉행했다. 신뇨엔 서울·부산 정사는 법요를 통해 이타행 실천 도량이 될 것을 맹세하고 신뇨(진여, 眞如)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하는 포교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종교법인 신뇨엔(원주 이토 신소)은 10월 20일 신뇨엔 서울정사 법당에서 '한국 신뇨엔 정사 낙경 개광명 법요'을 봉행했다. 법요는 서울, 부산과 일본의 신뇨엔 본원 응현원에서 3원 동시 라이브로 진행됐다.

개광명 법요는 개식으로 시작해 불과 향을 피우는 등명·향화 의식과 봉대 의식, 독경, 경과를 전하는 표백 주상 등으로 이어졌다. 불자들이 예불문을 독송하는 가운데, 신뇨엔 원주 게이슈사마가 입장해 개광명 의식 쇄정입혼(灑淨入混)을 진행했다. 의식 이후 불자들은 정진을 맹세하는 꽃과 등불을 올리고 감사의 꽃다발을 원주 게이슈사마에게 올렸다.

개광명 법요에는 신뇨엔을 이끄는 이토 신소, 게이슈사마 원주와 제3대 후계자 도리카에 다카시, 부교무장 구보다 요시히로, 서울정사 한국법인 이사장 기시다 가즈오, 국제부 고다마 아츠마사, 김상환 국원, 부산정사 수법자 아끼야마 히데오, 영준 국원, 김형태 법인이사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신뇨엔 부산정사에는 대만 신뇨엔 불자들이 동참했다.

원주 게이슈사마는 법문을 통해 "40여 년 전부터 합동집회, 한수행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진이 어린 한국에서 최초로 서울과 부산정사가 동시 낙경을 맞이함에 감사하다"며 "지역과 세대를 넘어 화합하고, 의처를 잘 연계해 신뇨의 융화세계를 구축해가자"고 당부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일본 응현원의 불자들은 개광명 의식 이후 수행으로 거듭난 삶의 기쁨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서울정사 신도 유문희 씨는 "신뇨엔의 가르침을 통해 젊은 시절부터 갈망했던 삶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행,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정사의 신뇨엔 한국청년회 부장 신지운 씨는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성격이 온화해졌다는 주변의 말을 많이 듣는다"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있어 즐거웠고 청년회 부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기쁨을 여러 청년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신뇨엔은 밀교계통의 재가불자 종단으로 이타심, 봉사, 전법, 수행을 강조한다. 한국의 첫 신뇨엔 포교원은 1987년 제주도에서 개원했다. 서울의 신도들은 호텔 합동집회, 가정집 한수행 등을 이어오다가 1990년 서울 포교원 개원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1992년에는 부산 포교원이 문을 열었다. 한국 신도가 증가하자 2000년 9월 17일 원주 게이슈사마가 한국을 방문했다. 2014년에 부산정사, 2017년에 서울정사가 설립돼 열반존상을 각각 봉안했다. 이후에도 많은 국원과 수행지도자를 배출해 현재 낙경 개광명 법요를 봉행, 도량 건립의 완성을 알렸다.

테러 위협에…방글라데시 카티나 법요 취소

이슬람 극단주의 타종교 테러
치타공지역 內 법요 일체 중단



카티나 법요 취소를 알리는 방글라데시 승가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OP 인디아 뉴스'

방글라데시 불교계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례적으로 봉행되는 카티나 법요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10월 7일 인도의 'OP인디아(OPIndia)'는 방글라데시 현지 보도를 인용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에 놓인 현지 불교·힌두교계의 상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인 치타공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파르바티야 비구 승가'의 회장 사랏달란카르 대장로 스님은 10월 6일 오후, 미트리 보우다 비하르 사원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불교 공동체에 만연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례 봉행되어 왔던 카티나 법요를 취소한다"며 "치타공 지역 내 그 어떤 사원에서도 카티나 법요가 봉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월 첫째주에 예정돼 있던 카티나 법요는 재가신자들이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새로운 가사, 발우 등 생필품을 공양하는 법요로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이어져온 중요 행사다. 재가신자들은 이날 법요에 참석해 안거를 성만한 스님들을 친견하고 찬탄하면 큰 공덕을 쌓는다고 전해져 현지에서는 가장 큰 불교 축제다.

현지 불교계는 이번 조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타종교에 대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 10월 1일에 열린 힌두교도 축제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난입해 사원과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했다. 현지 언론들은 단 6일 만에 3개 힌두사원과 16개의 힌두교 신상이 파괴됐으며, 학생 1명을 포함해 4명의 힌두교 신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사원의 보시함을 약탈하고 불상을 훼손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교가 아닌 이들은 이슬람법에 따라 지즈야(비이슬람교도가 무슬림 통치자에게 내는 종교세금)를 내야한다"며 "이를 내지 않는 불교와 힌두교도들은 모두 불법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근대 아닌 10세기 유물" 日 사찰 소장 불화의 진실

日 미이데라 소장 밀교 도상집
"불사 일환, 국보급 불화 유물"



〈오부심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소개하는 아지마 교수(중앙)과 타카마 준교수(좌).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일본의 한 사찰에서 소장한 불화가 최근 연구에 따라 국보급의 고대 불화로 판명됐다. 지난 10월 1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그동안 근대의 사본으로 여겨졌던 불화가 실제로는 10세기 경 원본이었다며, 우연히 그 진가가 드러난 불화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일본 오츠시(大津市)의 미이데라(三井寺)가 소장한 밀교 도상집 〈오부심관(五部心觀)〉. 두루마리 형태인 이 책은 금강계 만다라 5부의 여러 불보살과 진언, 상징을 그린 책으로 당나라에 밀교를 전한 인도의 스님, 선무외 삼장이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55년 당나라에서 밀교를 수학한 엔친(円珍) 대사가 귀국하며 가져와 현재까지 미이데라의 보물로 보관됐다. 현재 미이데라에는 엔친 대사의 원본과 이를 모사한 2권의 〈오부심관〉사본이 전해진다. 하나는 12세기 초에 제작된 사본으로 전반부 약 3분의 1이 유실된 〈전결본〉, 또 다른 1권은 1857년에 제작됐다고 전해지는 〈호묘인본〉 사본이다.

한편 10세기 경 유물로 밝혀진 사본은 〈호묘인본〉이다. 2021년부터 〈오부심관〉을 조사해온 아지마 노리아키 히로시마대 교수와 유카리 쥰 오사카 교육대 교수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2권의 국보 〈오부심관〉의 제작연대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이번 발견을 이뤄냈다.

연구팀은 "현재 〈호묘인본〉은 18.5m 두루마리지만, 최초에는 가로 49.5cm, 세로 33.7cm 전후 종이 39장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종이는 현미경으로도 종이 섬유가 확인되지 않을 만큼 얇고 튼튼한 최고급지라 오랜 세월 거의 열화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제6회 세계불교포럼 개최…72개국 참석

中서, 8천여 불교도 참석
'공존을 위한 협력' 주제로



10월 15일 열린 제6회 세계불교포럼 개막식. 사진출처=차이나데일리

전 세계 불교 지도자가 모여 인류의 공존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제6회 세계불교포럼이 지난 15일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에서 개막했다고 CGTN 등 외신이 보도했다. '공존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72개국 불교 승려 및 전문가, 학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의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공존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불교적 지혜로 전 세계에 닥친 전쟁·기아 등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종교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담론도 진행됐다.

세네갈의 얀 우(YAN WU) 스님은 "공존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불교도들 간의 국경을 넘는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체코공화국의 하즐바우어(JIRI HAZLBAUER) 스님도 "불교도 간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인류 중 하나이며, 종교는 모든 인류가 함께 지내는 데 도움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의 젠 빙(JIAN BING) 스님도 "지금까지 4번이나 불교 포럼에 참석했다"며 "이를 통해 여러 나라의 불교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부터 3일간 이어진 행사에서는 여러 하위 포럼을 비롯해 미술품 전시, 나무 심기 활동 등이 진행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세대·장르 넘나든 불교동아리 한마당

전 세대 함께한 불교문화 향연
새로운 문화 포교의 시작 알려
본선 진출 9팀 열정 무대 펼쳐
광동중 '레디언트' 대상 수상해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2024 불교문화대전-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이 10월 19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우수상을 수상한 봉은사 '취타대'의 공연 무대.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불교 동아리들의 재능과 열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가 주최하고 불교문화대전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024 불교문화대전-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이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은 5회째를 맞은 불교문화대전의 일환으로 사찰과 종립학교, 불교 단체에서 추천받은 비전문 동아리들이 참가했다. 예선에는 전국의 불교문화동아리 22팀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으며, 이 중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무대에서는 무용, 악기 연주, 노래,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고, 관객석에서는 열띤 응원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동대부중 불교학생회 밴드부 '니르바나'의 경쾌한 연주에 이어 조계사 '향무용단'은 나라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는 부채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선무도 서울본원'은 움직이는 선무도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전했고, 불교문화단체 '여여청소년가야금병창단'과 '무악재 아트그룹'의 안혜경 씨는 가야금 연주와 호남살풀이춤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청계사의 '비파천인단'과 봉은사의 '취타대'는 전통악기 연주로 무대를 장식했으며, 광동중학교 댄스팀 '영웅'과 '레디언트'는 에너지 넘치는 댄스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영예의 대상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인 광동중 댄스팀 '레디언트'가 차지해 2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레디언트'의 김은재(14) 학생은 "불교 동아리들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불교문화와 예술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동대부중 밴드부 '니르바나'와 봉은사 '취타대'에게 돌아갔으며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장려상은 총 6팀에게 돌아가 각 팀이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승패를 떠나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조계종 문화국장 신해 스님은 "불교 동아리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마련해 참여 팀과 관객 모두가 더욱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예술단체와 불자 문화인들이 함께 즐기는 불교문화 축제 '불교문화대전'은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시상식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미륵사지 치미, 백제 건축미 재현하다

국립익산박물관 5주년 특별전
치미 복원 등 185건 한자리에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 완형 공개


전북 익산 미륵사지 동원 승방지에서 출토해 완형으로 복원한 치미.

국립익산박물관이 백제 최대 사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를 복원하며, 1300년 역사를 간직한 백제 건축의 정수를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개관 5주년을 맞아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을 내년 3월 3일까지 선보인다. 전시는 국립익산박물관의 중장기 학술조사 연구 프로젝트인 '미륵사지 재발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별전은 치미의 제작부터 폐기, 복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여주며 백제 시대 건축미를 집중 조명한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는 지붕 양 끝을 장식했던 기와로, 미륵사 대찰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복원한 동원 승방지와 연못지 출토 치미가 최초로 공개돼 특히 주목된다. 완전한 형태로 복원된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는 높이가 143cm에 달해 백제 건축물의 예술적 정교함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1부 '과학기술과 보존·수복을 통해 본 치미'에서는 치미의 내부 구조와 복원 과정을 과학기술로 분석한 내용을 다룬다. 제작 당시의 기술과 치미를 되살리기 위한 보존 처리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이 복원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2부 '형태를 빚고 문양을 담은 치미'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의 형태와 문양을 조명한다. 치미에 새겨진 용문과 연화문 등 다양한 문양을 통해 고대 백제의 예술적 감각을 감상할 수 있다.

3부 '용마루 위 장식기와, 치미'에서는 복원된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가 대형으로 전시돼 고대 백제 건축의 규모와 장식 기법을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강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현선 기자

불광 50주년 기념 2차 학술대회 성료

10월 19일, 전법 교화 방향 모색
새로운 시대의 제3불광운동 추진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와 불광미디어가 주최한 제2차 학술대회는 10월 19일 경내 보광당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법교화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실상사 한주 법인 스님은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야 반야바라밀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출가자와 재가불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협력과 적절한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운동의 미래를 위해 참회기도 정진과 현대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주지 동명 스님은 광덕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제3불광운동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현선 기자

신라불교 초전지 역사·현대적 가치 조명

교불련, 10월 19일 학술대회 개최
20일엔 도리사 등 초전지 탐방도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불교의 전래를 살피고, 역사적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교불련)는 10월 19일 경북 구미 도개 행복나눔센터에서 '신라불교의 특징과 초전지 불교 자산의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사)날마다좋은날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2024 신라·백제불교 자산구축 사업' 일환으로 열렸다.

첫 발제는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가 '신라시대 불교 초전의 시대적 의의'를 주제로, 국가 간 외교를 통해 전법한 고구려·백제와 달리 신라불교는 민간전래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경집 동국대 교수는 당항진에서 이뤄진 구법승 활동을 통해 신라불교의 전개 양상을 살폈다.

계미향 동국대 교수는 '신라시대 불교 전래와 교학·교단의 형성'에서 "통일신라 시기는 신라불교와 한국불교의 완성과 정립 시대라고 평가되는 만큼 교학의 수준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석길암 동국대 교수는 농경 혁명에 따른 사회구조 변동이 신라사회의 불교 수용과 체제화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고찰했다. 석 교수는 "'불교를 공인하였다'라는 규정은 사회 변동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교는 기독교에서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공인이라는 표현보다 체제화라는 전래과정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난 뒤 종합토론에서는 홍선기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성렬 조선대 명예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이민성 중앙학연구원 연구원, 황상준 위덕대 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역사적 고증과 유물 발견 등을 통해 초전불교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구전과 함께 형성돼 온 불교 자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술대회에 이어 20일, 참가자들은 신라 처음 절인 도리사와 직지사를 탐방했다.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의 안내로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명상터를 둘러봤다. 김내영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창립 50주년 심포지엄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미래불교 나아가야 할 길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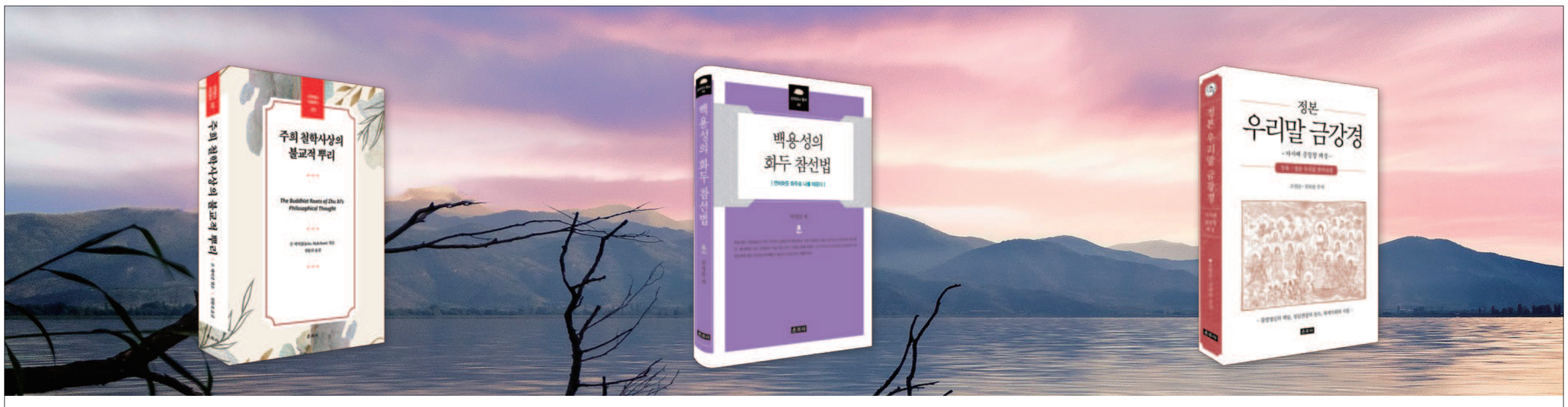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11월 1일 오전 10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을 주제로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종교, 철학, 심리학, 물리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교와 현대 사회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어떤 불교를 말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과 현대 사회의 관계를 진단하며,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사성제의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성태용 전 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보는 눈과 걷는 발이 함께 하는 불교'를 주제로 지혜와 실천의 균형을 강조하며, 양형진 고려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물리학부 명예교수는 '상대성 이론과 나에게 나타나는 불교'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시선에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한다. 해일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은 '팬데믹 이후 한국불교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유학자 주희의 사상에 대한 고찰!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주희는 강하게 불교를 배척하고 비판했지만, 그의 사상 상당 부분이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
존 메이컴 엮음, 정환희 역/신국판/552쪽/값 30,000원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되살리다!
백용성의 화두참선법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용성스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사상과 수행방법,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포교방법에 대해 조명하였다!
허정선 저/신국판/양장/268쪽/값 22,000원

가사체 금강경과 가사체 반야심경 해설!
정본 우리말 금강경
9종에 달하는 금강경 판본을 비교해 '정본 한문 금강경'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명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사체로 만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조현춘.천희완 공저/신국판/44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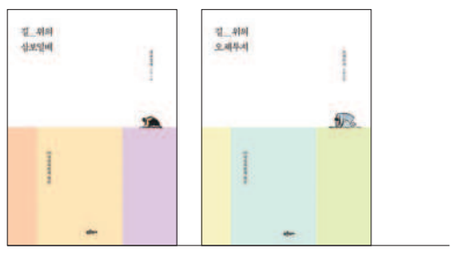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3~10/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철학자와함께읽는동화*동화인문학	이일야	담앤북스	6	춤추는스님원효대사(만화고승열전2)	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	운주사
3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9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사찰문화해설가이드북	강계 이지범	중도	10	보현행원품과마음공부	법상	민족사

책세상

삼보일배·오체투지, 다시 생각하다



길 위의 삼보일배, 길 위의 오체투지 전 2권

(사)세상과 함께 엮음 / 푸른역사 / 각 권 2만원

2003년 새만금사업 중지 삼보일배
2008~2009년 오체투지 기록물
"전쟁 · 기후위기 환경파괴 등으로
삼보일배 · 오체투지 필요한 시대"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2003년 새만금 삼보일배의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새만금이 묻히고 있습니다. 강이 더 큰 인공의 강-대운하-에 수몰된다 했습니다. 땅이 땅에 묻혀 숨 막혀 하고, 물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책 〈길 위의 삼보일배〉와 〈길 위의 오체투지〉는 2003년과 2008년 그리고 2009년을 소환한다. 모두의 글은 수경 스님이 2003년의 삼보일배와 2008~2009년의 오체투지를 회상한 것이다.

2003년 3월 28일 한국사에서 처음 보는 기도이자 순례가 시작됐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4대 종단의 성직자인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가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비폭력 저항이자 묵언의 대안 제시를 위한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삼보일배'는 65일 동안 서울 광화문까지 322km에 걸쳐 이어졌다.

그리고 2008년 9~11월과 2009년 3~6월에는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가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내걸고 124일 동안 날마다 천 배를 올리며 지리산 노고단에서 계룡산을 거쳐 임진각 망배단까지 355km를 오체투지로 이동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한국 사회의 무지와 위선과 기만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는 국책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무책임하게 이뤄졌던 정책 실패와 막대한 혈세 낭비의 악순환을 끊는 정책 대전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2003년 3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앞장서며 수많은 환경·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과 시민이 나서게 됐다. 이들 모두가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36개 환경종교시민 단체 참여)로 모였다. 삼보일배의 시작이었다.

두 권의 책은 위의 역사적 현장으로 기록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에 대한 기록으로, 그 날의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순례가 사람과 환경, 생명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책은 자벌레와 갯지렁이 등 땅 위의 작은 생명들과 눈을 맞추며 오체투지로 걸었던 이들이 길 위의 하루하루를 적어 놓은 것이다. '너는 나의 뿌리이며, 나 또한 너의 뿌리'라는 평등과 공동체 정신을 갖고 '나'부터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로 상생의 길을 걸었던 대중의 발자취이며, 모든 생명체 간의 용서와 공존을 기도하고, 지구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하나라는 큰 연민을 가졌던 열린 마음들, 생명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려 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로 다가올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년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사계절 경치를 직접 누리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저 글과 사진만으로 그 풍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삼보일배'는 불가의 수행법으로, 걸음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욕을 응시하고 자신의 진심(분노·화)을 성찰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불가의 수행법이다. '오체투지'는 양 팔꿈치와 무릎, 이마를 땅에 대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을 배우며, 자기 안의 탐진치를 비우는 수행이다.

그 역사적 현장이 있은 후 삼보일배 오체투지는 불합리와 모순에 항거하는 대중의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비폭력은 무기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닌 힘'이며 불복종은 '불의에 대한 불복종'임을 일깨웠다. 또한 종교간의 화해와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했다. 새만금 삼보일배 당시 맨 앞에 섰던 수경 스님은 (사)세상과함께를 만들어 새만금 살리기에 함께하고 있으며,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제정해 환경보호 운동가들을 응원하고 있다.

전쟁과 기후 위기, 환경파괴로 미래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의 시간을 소환하는 두 권의 책은 '왜 지금?'이 아니라 '왜, 이제야'라는 물음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가 시대를 걱정하는 '언어'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책 속의 진솔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왜 지금?'이 아니라 '왜 이제야'인지 알게 된다.

'불광' 이름으로 대중·생활불교



광덕 스님 법어록

광덕 스님 편저

불광출판사 / 3만원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 법어록 발간
광덕 스님 사상 · 가르침 정수 담아
방대한 법문 엄선해 주제별 분류해
종교 교훈 넘어 인간존재 본질 탐구



광덕 스님 진영.

월간 〈불광〉 창간과 불광법회 창립, 그리고 잠실 불광사 창건은 한국불교사에서 의미가 큰 불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인 광덕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 속에 녹여내고자 했으며, 모든 사람을 '고귀한 빛'이자 무한한 불성을 지닌 생명으로 정의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절대 긍정이자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생각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신앙적 언어로 재해석되었으며, 모든 존재는 존엄하다는 광덕 사상의 뿌리가 됐다.

불광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광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법어록 〈광덕 스님 법어록〉이 출간됐다. 스님의 방대한 법문을 3년여에 걸쳐 엄선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한 권의 법어록으로 묶었다. 법어록에 담긴 지혜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본래 평등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무비 스님(범어사 한주)은 발간사에서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자 시작된 불광의 여정이 어느덧 반백년이 되었습니다. 그 정진의 결실이 500여 페이지의 법어록으로 우리 앞에 나투었습니다. 당신의 장광설은 문자사리가 되었고, 수행법은 '마하반야바라밀법'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시대와 사람을 이어주고 부처와 중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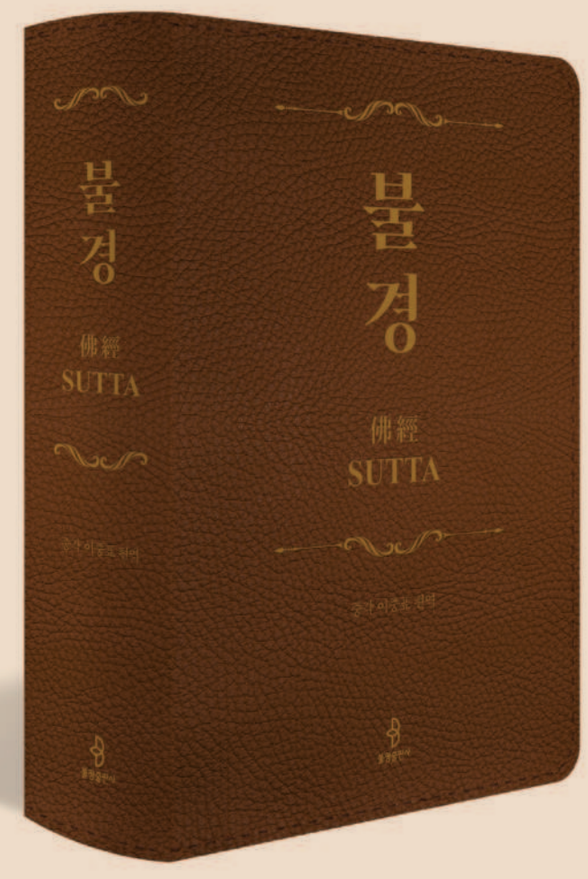
광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한 데 모아놓은 이번 법어록은 구도와 포교에 일생을 바친 스님의 치열한 삶이 남긴 귀중한 유산으로, 생명 존중 사상과 중생 구원의 실천을 돕는 지혜의 가르침들로서,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불성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법어록은 각 주제의 구절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늘 가까이 두고 수지독송하기에 좋으며, 바쁜 생활 속 짧은 시간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이성이 있다. 틈나는 대로 한 구절씩 읽어도 좋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했을 때 읽고 싶은 대목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법어록은 전체 5부로 만들었다. △제1부는 광덕 스님의 구도의 상징인 '불광 사상'편으로 '순수불교선언'과 '한마음 헌장'을 수록했다. △제2부는 '사상'편으로, 반야바라밀 사상과 보현행의 실천방법, 번뇌와 경계를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법 등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이 담겼다.

△제3부는 '생활'편으로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소개한다. 행복의 법칙, 소원성취와 운명극복, 고난을 다스리고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법, 경제활동의 의미, 건강과 죽음, 공동체와 사회생활, 기도와 수행 등을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제4부는 '사회'편으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5부는 현대 불교의례의 근간이 되는 서원과 발원문, 그리고 스님이 직접 작사한 찬불가로 구성했다.

박재완 기자



"기독교에 성경,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다면
불교에는 불경(佛經)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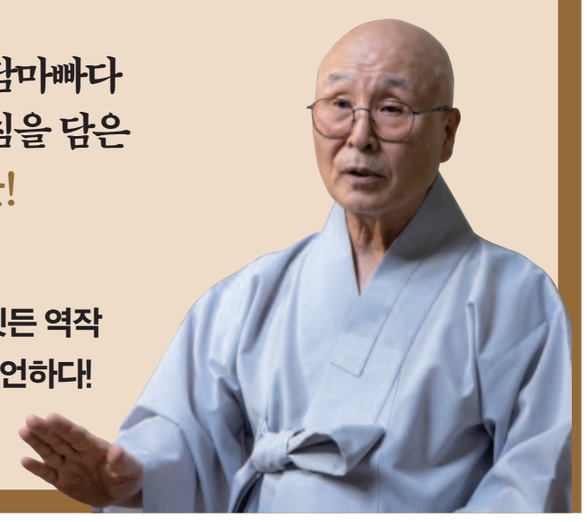
붓다의 가르침을 집약한 세계 최초의 한글 불경

율장, 니까야, 숫따니빠따, 담마빠다
석가모니 붓다의 실제 가르침을 담은
세계 불경의 결정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50년 염원이 깃든 역작
'불상(佛像)에서 불경으로', 불교 공부와 수행의 전환을 선언하다!

출간 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불경 佛經
중각 이중표 편역
1,448쪽 | 70,000원
가죽 양장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교공부, 불교철학사 이해서 시작해야



인도불교철학
얀 웨스터호프 지음
강병화 · 유경 옮김
불광출판사 / 3만원

불교, 2600년 지속된 거대한 유기체
불교공부 위해서 인도불교철학 봐야
아비달마~7세기 담은 '印불교철학사'
개론서보다 더 개론서답게 사유 살펴



통도사 적멸보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공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초기불교'로 시작할까. 아니면 대승불교로 시작할까. 불교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은 책이 나왔다. 신간 〈인도 불교 철학〉이다.

불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기불교'부터 시작한다면 초기불교에 치우친 관점을 갖게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불교'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불교는 약 2600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무대로 하여 성장하고 발전해 온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는 초기불교 혹은 대승불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불교 학파의 가르침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닌 것이다.

불교라는 장구한 드라마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고통스러운 중생의 삶과 결합시키기 위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란 단순히 '무상'이나 '공(空)'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굳은 의지와 꺼지지 않는 생명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불교공부의 바람직한 출발점은 '불교'라는 범주로 포괄되는 여러 가르침이 석가모니 이래로 어떤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어떻게 흥기하고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일 수 있다. 불교는 문자로 전해지는 가르침만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역사를 추동한 노력과 고민, 의지와 생명력에 비추어 고찰될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공부라는 긴 여정을 불교철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할 때,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생경한 '불교'들에 대해 진지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개방적인 태도에 입각한 불교공부는 불교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삶을 보다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불교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그 출발점으로 불교철학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교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불교'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여러 가르침을 대하는 성숙한 안목과 태도를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목과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면 불교공부라는 기나긴 여정을 지나며 만나는 풍요로운 가르침의 세계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책 〈인도 불교 철학〉은 불교철학의 역사에 대한 책으로서 아비달마 시기(서력 기원 초기 무렵)부터 다르마끼르띠의 활동 시기(7세기 무렵)까지의 인도 불교철학사, 즉 아비달마·중관학파·유가행파·인명학파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사유를 선별하여 충실하게 소개한다. 이 시기의 인도불교는 이후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전개된 여러 '불교'들의 교리적 기반이 됨으로써 2600년 불교철학사의 뼈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장 '아비달마'에서는 아비달마 전통의 성립 배경이 되는 논모(論母, mātṛkā)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등 주요 부파의 특징적인 사유들을 차례차례 다룬다. △2장 '대승'에서는 대승불교의 기원, 반야 사상, 용수의 철학을 주로 다룬 다음, 불호·청변·월칭·적호·연화계 등 용수의 뒤를 이어 중관학파의 맥을 이은 주요 학자의 사상까지 살펴본다. △3장 '유가행파'에서는 유가행파의 발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후, 찰나멸론·유심론·알라야식론·삼성설·자증설 등 유가행파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들을 설명한다. △4장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 학파'에서는 이들이 전개한 인식론과 논리학의 개요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의 학파 귀속 문제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까지 아울러 다룬다.

책 〈인도 불교 철학〉은 여러 사유를 설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않음에도 본격적인 개론서보다 이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책은 여느 개론서처럼 각기 다른 불교학파에 귀속되는 여러 사유를 그 자체의 논리에 입각하여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불교철학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각각의 사유들이 가진 문제의식과 그 의식적 지향들을 고스란히 살려냄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책은 불교철학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론서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하게 수행한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골라 뽑은 입보리행론송
샨티데바 지음
역자 · 원인
민족사 / 1만5천원

"나는 나 자신과 내 모든 소유물을 불보살님과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존재 중에 가장 으뜸이신 분이시여! 공경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책 〈골라 뽑은 입보리행론송〉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 책이다. 7~8세기의 성자 샨티데바(적천 비구)가 쓴 입보리행론송 가운데 감동적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원인 스님이 친절하게 골라 뽑았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들이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대승불교의 입문서'라고 불리며 광범위한 가르침이면서도 간단한 게송으로 표현된 책이다. 인도에서는 〈입보리행론〉이라 했고 한역에서는 '보리행경(菩提行經)'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보리행론이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글'이고, 보리행경이란 '보리심을 닦아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입보리행론송〉은 보리심과 보살도 정신을 대승보살의 6바라밀 뜻으로 풀이한 감동적인 게송(詩, 명상시)을 담고 있다.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골라 뽑은 입보리행론송〉은 가치관의 부재로 갈팡질팡하는 현대인들에게 나침반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2021년 설법을 하면서 위기에 처한 세상을 극복할 열쇠는 바로 '보리심'에 있다고 했다.

역자 원인 스님은 보리심이라는 우리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진 청정한 마음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며, 보리심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리적 수행이고 또 하나는 이타적인 보살도이다. 원인 스님은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리도와 보살도라는 큰원력과 큰마음을 가지고 정진할 때 마침내 보리심을 증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재완 기자

효과적 수행 위한 실질적 조언들



지금 바로 시작하는 마음챙김 명상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조인숙 · 이재석 옮김
마음친구 / 1만6천800원

"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명상을 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만으로 우리는 삶에서 쉬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불만족을 타고난 존재가 된다. 책 〈지금 바로 시작하는 마음챙김 명상〉의 저자는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가 '인간'임으로 인해 갖게 되는 근원적인 불만족을 해결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챙김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마음 훈련이다. 마음챙김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기 발견의 과정이자 관찰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다. 마음챙김 수행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과 개념의 장막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점에서 일상적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평소 우리는 생각과 개념이라는 장막을 통해 보는 세상을 '실재'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다. 이때 '세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마음챙김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이기적 행동을 보고, 자신의 괴로움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평소 자신에게 속삭이는 거짓말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때 세상에 지혜롭게 응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상을 걷어내고 실재를 알고자 할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이것은 교리나 도그마, 신앙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실재인 것이다. 마음챙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쉬운 영어로 배우는 마음챙김〉 가운데서 지금 바로 명상을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만을 새롭게 간추린 것이다. 명상할 때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상할 때 일어나는 몸의 통증과 졸음, 지루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두려움과 초조함, 자기 비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수록했다.

박재완 기자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교과서



행복하고 싶은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입보리행론송

7~8세기의 성자 샨티데바가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는 행복으로 가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름다운 게송(명상시)으로 일깨워 준 입보리행론송!
수행자의 안목으로 감동적인 게송만을 정선精選하고 개역改譯한 책

역자 원인, 저자 샨티데바 | 216쪽 | 15,000원



원인 스님 1969년 합천 해인사 입산, 1974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이후 50년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 2010년 김천 수도암 선원장, 현재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유튜브 큰마음TV, 다음 큰마음카페
저서로 법문집《마음고향 가는 길》,《염불선의 요체》, 강설집《삶의 지혜(금강경 강설)》,《선으로 본 화엄경 요점 해설》,《초발심자경문 강설》, 선시집《마음여행》,《자연 속에서》,《구름 따라 길 따라》 등이 있다.

NEW BOOK
출판 기획안을 받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참신한 불교책 기획안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minjoksa.org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사회복지는 ‘화두’요, ‘염불’이요, ‘수행’입니다”



성운 스님은…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어른이자, 불교사회복지의 선구자인 성운 스님은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강원 졸업 후 수행 중 1970년대 후반 삼천사 주지로 부임해 대가람으로 중창했다. 사회복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불교학회 회장으로 불교학 발전에 기여했고 성운학술상을 제정해 후학양성에도 진력하고 있다.

몇 년 전 처음 성운 스님을 뵈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팔순을 앞두고 있었지만 스님의 발걸음이나 손짓은 물론이고 얼굴 표정 역시 20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가장 선명했던 것은 스님의 ‘마음’이었다. ‘패기’였다. 누구보다 젊고 미래지향적인 당신의 생각을 설명하던 스님을 보며 ‘생각과 마음이 젊은 진짜 청년’을 만난 느낌이었다.

최근 성운 스님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스님이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는 것이었다.

스님이 사회복지에 헌신하며 수많은 성과를 일군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 스님을 옆에서 ‘아주 살짝’ 지켜봐 온 입장에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곧바로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삼천사로 향했다. 서울에 있지만 깊은 산속 어딘가에 있는 절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삼천사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계곡의 물소리는 시원했고 큰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산바람도 정겨웠다.

삼천사는 북한산 의상능선의 한가운데 등줄기를 이루는 용출봉(龍出峰), 용혈봉(龍穴峰), 증취봉(甑炊峰)에 둘러싸여 있다. 30여 개의 전각에 내외국인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는 대찰(大刹)이 바로 삼천사다.

‘삼각산 삼천사(三角山 三千寺)’가 적힌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보물 마애여래입상에 절을 올렸다. 이어 다른 절의 산신각과 같은 ‘산령각’에 올랐다. 산령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 보니 마치 신선이 된 느낌이다. 산의 기운을 온전히 품에 안고 성운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전설

스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여전했다.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삼배를 올렸다. 전에도 그랬지만 스님 방에는 각종 상장들이 가득했다. 훈장부터 표창까지 종류도 다양했고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스님은 이미 교정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성운 스님이 설명한 노인복지 관련한 업적들부터 정리해 본다.

1994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을 설립한 성운 스님은 △인덕노인복지회관 설립 운영 △전국 최초 치매노인 단기보호소 설치 운영 △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설립 운영 △어르신 맞춤형 50여 개 프로그램 개발 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단순 쉼터개념 소규모 경로당 통합 신개념 경로당인 노인복지센터 개설 운영 등 시대를 앞서는 노인복지모델을 제시 운영해왔다.

특히 2009년 300병상 규모의 최첨단 요양원과 재가방문,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노인복지타운을 완공해 원스톱(ONE-STOP) 토털케어시스템을 구축했다. 2010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지금까지 최우수 요양등급 시설로 운영중이다.

지난 10월2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평생 동안 사회복지 헌신 공로 인정
1984년 앙골라 이재민 성금 모으며
복지 원력 세워…1994년 법인 설립

법인 내 20여 개 복지시설 운영 중
최초 치매노인 보호소 설치 등 성과
예산만 500억 원, 직원 1천명 달해
‘메머드급’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

성운 스님은 나아가 2000년 무의탁 어르신 100여 명에게 낡은 집 개보수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무의탁 독거 어르신 300여 명 무료 틀니 보급 △무의탁 어르신 칠순·송년 잔치 개최 △어르신 검정고시 학교개설 운영 △230여 명 어르신 대상 무료 장례서비스센터 제공 등의 사업도 펼쳐왔다.

“이번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된 것은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며, 80년이 넘는 인생과 70년이 넘는 수행자의 길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출가 수행자가 세속의 훈장이나 칭찬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만의 공로가 아닌 동고동락을 함께한 은평구민과 서울시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천사와 인덕원 등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제가 은평구 진관외동 삼천사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은 1978년 삼천사에 왔다. 당시 삼천사 주변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보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1975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던 중 문수동자를 친견했습니다. 문수동자가 삼각산으로 가서 포교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꿈에서 마애여래입상을 봤어요. 삼천사에 와 보니 꿈에서 보았던 마애여래입상이 계셔 여기서 짐을 풀었습니다. 당시 진관내·외동은 상이군경과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절의 보리쌀 등을 나눠주던 중 중생에게 나눔을 베푸는 일이 자비복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운 스님은 “종교와 사회복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국가가 비운 자리를 종교가 채워야 합니다. 출가 이후 60년이 넘도록 화두를 참구하고 교학을 연찬하면서, 진리는 대승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으로 봉직하면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성운 스님은 총무원장 녹원 스님을 모시고 1984년 조계종 사회부장 소임을 맡았다.

“녹원 큰스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주변 도반들의 추천으로 사회부장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도반들이 ‘해인강원을 졸업해 내전(內典)에도 밝고 영어에도 능통해 국제적 감각이 있고 또 현대사회 흐름을 잘 알고 있어’ 추천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평가였죠.”

성운 스님의 불교사회복지 원력도 녹원 스님을 모시면서 구체화됐다.

“제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종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앙골라 이재민 돕기 모금을 하면서입니다.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6000만원을 모금해 전달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그때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없이 초라했던 불교 현실에,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이웃종교 상황에, 두 번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뒤 복지법인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니 녹원 큰스님만 저의 뜻을 지지해주셨고 다른 소임자들은 눈만 깜빡이고 있던 상황이 기억나네요.”

13면에 계속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
나의 원불도 하나뿐!

거제도 명당에 불교의 세계를 담은 세계건축 명장의 설계와 나만의 도자기 부처님으로 신개념 불교센터 사원을 건립합니다.

창건불사에 인연공덕 지으십시요!

원 불 108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오오!일사천리)



지상백고좌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베푸는 마음 가지면 만 가지 소원 이룬다”

12면에 이어

이후 스님은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1994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거나 새로 건립했다. 현재 인덕원은 20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종사자만 1000여 명에 이르고, 시설 이용자만도 연간 1000만명이 넘는다. 매년 예산으로 약 500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초불교적’ 규모다.

성운 스님은 “인덕원의 인(仁)은 사랑과 자비요, 덕(德)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덕원을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운 스님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모습.


성운 스님이 삼천사 마애여래입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끝이 없는 배움의 길과 회향

스님의 방에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은 잡지 〈타임(TIME)〉이었다. 스님은 〈타임〉지와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했다.

“시대에 맞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면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벳도 모른 채 〈타임〉지를 보며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요.”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직후였다. 스님은 불교가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대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걸망을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어른스님들은 세속 공부를 만류하던 시절이었다. 해인사 일타 스님도 똑똑한 성운 스님이 수좌가 되기를 당부할 정도였다. 그러나 스님은 불교가 중생들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울에서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만학도가 되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계사 화장실에 딸린 창고에서 지내며 경비도 보고 화장실 청소도 도맡았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타임〉지를 읽었어요. 그걸 읽으며 세계정세에 눈을 떴지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타임〉지는 세계 문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주문이었습니다. 저를 이룬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라면 세상을 알게 한 것은 〈타임〉이었습니다.”

스님의 꾸준한 공부과정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와 보호소를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스님은 은평구사원연합회장을 겸임하면서 1995년부터 매년 호국충혼법회를 통해 40~50명의 서울 지역 청소년에게 30여 년간 약 1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재)삼천사성운장학재단을 설립해 은평구 거주 동국대 학생 30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배움을 갈구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인에게 자기개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정부 신흥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평구에 강의실을 마련,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50여 명을 배출시켰다. 동국대 석좌교수로 출강해 노인복지분야 석·박사 논문 제자 73명을 배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미래인재 양성에도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복지철학은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아쇼까왕의 복지사상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1990년대 이후 불교사회복지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교복지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이 빠져 있음을 인식하고 인도 고대 아쇼까왕의 통치이념에 나타난 복지사상의 배경과 내용을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아쇼카왕의 복지사상 연구’는 우리나라 불교사회복지 연구에 있어 기준이 됐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수행자로서 ‘노인복지 현장경험론’(2003년), ‘사회복지실천 현장론’(2004년), ‘노인복지론’(2007년), ‘사회복지현장실습’(2007년), ‘뉴 가이드 노인복지론’(2008년), ‘불교사회복지론’(2010년) 등을 통해 복지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스님 방에는 월탄 스님 사진도 있다. 성운 스님은 2022년 8월 스승 월탄 스님을 보내드렸다. 1969년부터 50년 넘게 모신 스승과의 이별은 쉽지 않았을 터. 월탄 스님은 불교정화를 위해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할복한 육비구 중 한 분이다. 월탄 스님은 “당시 대법원장 방에서 ‘우리는 비구승인데 불법(佛法)에는 대처승이 없다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히고 할복을 단행했다”면서 “불교를 위해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지닌 희망자를 모집하여 참여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대승보살행, 진정한 사회복지의 길
중생제도, 중생복지가 수행의 목적
자비로 고통 속 중생과 함께 해야

“은사스님은 정법에서 어긋나면 뇌성(雷聲) 같은 사자후(獅子吼)로 엄한 아버지처럼 경책하셨지만, 평소에는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세세생생(世世生生)의 원력을 금생에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신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생에는 서원(誓願)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님 방에는 성철 스님의 글씨 ‘불기자심(不欺自心)’도 있었다. 성운 스님의 좌우명이 바로 ‘불기자심’이라고 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죠. 청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정한 자리에 있으면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없어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스님의 불교와 수행, 수행과 복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은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다른 표현입니다. 수행의 완성과 중생복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한 이고득락(離苦得樂), 발고여락(拔苦與樂)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사회복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나눔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풀면 언젠가 그 베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조건 없이 주니까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조건 없이 주면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 사상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이며, 복지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 자체가 중생복지라고 강조했다. 수행하는 목적 역시 중생제도와 중생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가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개하는 활동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보편적 자선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종교 가운데 특히 불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존엄과 평등사상에 이념과 가치를 두고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복지활동을 실천했어요.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로 생겨난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불교가 주체가 되어 불교의 가치규범이나 원리, 사상 등을 기반으로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불교사회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사회복지의 선구자, 아니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선구자로 존경받고 있는 성운 스님은 주저함이 없었다. 스님의 말씀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다. 긴 시간 스님 말씀을 듣고 마당에 나오니 무언가 모를 청량감이 느껴진다.

“복덕을 얻으려거든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니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이익되게 하면 복덕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라.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베푸는 마음을 늘 가지면 만 가지 소원을 이룸이니라.”

경내에 세워진 스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왔다. 다시 산을 내려가려는 중생에게 전하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육취윤회경〉에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되고, 의약을 보시하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등불을 보시하면 항상 눈이 밝아지게 되며, 음악을 보시하면 목소리가 아름다워진다. 침구를 보시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보시하면 항상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을 기약할 수 없지만 고통의 바다 아닌 곳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와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무한한 자비심과 차별 없는 평등심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유철주 / 작가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㉑ 탑곡 마애조상군



▶한줄 요약
탑곡 마애조상군은 7세기에 조성된 경주 남산의 초기의 불교 유적이다. 탑곡 마애조상군이 새겨진 바위의 높이는 10m이고 둘에는 총 40m이다. 사면에 부처상, 보살상, 비천상, 금강역사, 좌선하는 스님, 사자 등 총 24구와 5m 높이의 9층 탑과 3.5m 높이의 7층 탑을 조각해 놓았다.

불보살부터 탑까지…바위에 새긴 불국토

불곡마애여래좌상을 참배하고 내려와서 동남산 문천길을 300m 정도 내려오면 버스 한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작지만 아담하니 괜찮은 주차장이 나온다. 서남산주차장이나 동남산 통일전 앞의 주차장 이외에 대형 버스 한 대 정도 주차할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 탑곡 마애조상군의 주차장이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탑과 절이 있었다고 해서 탑곡(탑골)이란 지명을 사용하였다. 탑곡주차장 주위로 예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작은 계곡을 따라 마애조상군으로 오르는 한가한 길은 부드럽고 포근하다. 꽃피는 철에 가면 계곡 길을 따라 좌우에 들어서 있는 아담한 집들 마당과 축대 사이의 이름 모를 꽃들이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나는 남산 참배 길에서 손에 꼽히는 이쁘고 한가하고 아담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탑곡 마애조상군은 1924년에 세워진 옥룡암 옆에 있다. 옥룡암의 '소림정사' 법당의 초석은 신라시대 초석이다. 마당에도 신라시대의 크기가 다른 옥개석과 석재로 만든 석탑과 난간이 있다. 〈경주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에 보면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신인사(神印寺)라는 글의 명문이 써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그렇기에 신라시대 신인사의 터로 추정한다. 그런데 지금은 기와의 행방은 모른다고 한다.

한국에는 신인종(神印宗)이라는 교종의 종파가 조선 초기까지 있었다. 〈삼국유사〉를 보면 신유림(神遊林)이었던 사천왕사에서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의 기도로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명랑(明朗) 스님을 개조로 한다. 또한 명랑은 신라 불교를 확립한 자장 율사의 조카이기도 하다. 관련 역사 기록은 이렇다.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하려고 하자 왕이 용궁에서 비법을 전수하고 온 명랑법사에게 방비한 방책을 물어본다. 명랑이 말하기를 '낭산 남쪽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하십시오'하였다. 절을 짓기 전에 당나라가 침공해오자 명랑은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짓고는 오방신상을 만들었다. 또한 유식종의 뛰어난 스님(瑜伽名僧) 12명과 함께 문두루비밀법 기도를 하니,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이후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 하였다.

명랑은 신라 사간(沙干) 재랑(才良)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남간부인(南澗夫人)인데, 소판(蘇判) 무림(茂林)의 딸 김씨이며 곧 자장의 누이라고 한다.

신유림은 낭산에 있었는데 신라 전불시대(前佛時代) 칠처가람(七處伽藍) 중 하나이며, 도리천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선덕여왕의 신비한 이야기와 함께한다. 신라는 불교를 삼국 중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가섭 부처님이 법을 설한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의 절터가 전불시대 칠처가람이다.


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불보살과 탑 등이 새겨져 있다.

서울에 일곱 곳의 절터(칠처가람)가 있는데 첫째는 천경림(天鏡林, 지금의 흥륜사)이다. 둘째는 삼천기(三川歧, 지금의 영흥사)이다. 셋째는 용궁 남쪽(지금의 황룡사)이다. 넷째는 용궁 북쪽(지금의 분황사)이다. 다섯째는 사천미(沙川尾, 지금의 영묘사)이다. 여섯째는 신유림(神遊林, 지금의 천왕사)이다. 일곱째는 서청전(婿請田, 지금의 담엄사)로서 모두 전불시대의 절터이다.

선덕여왕이 신하들에게 병도 없었는데 스스로 자신이 죽을 날짜를 말하면서,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고 하였다. 도리천이 어딘지 몰라서 신하들이 물으니, 낭산 남쪽이라 하였다. 선덕여왕이 말한 날짜에 승하하자 장사 지내고 10년이 지난 뒤에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낭산 남쪽에 창건하였다. 사천왕천은 도리천에 있으니 선덕여왕의 신령스러움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사천왕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사천왕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나타나는 금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탑을 세우는 쌍탑 양식의 최초 사찰이기도 하다. 또한 신라 최고의 명장(名匠)인 양지(良志) 스님이 제작한 녹유신장벽전(綠油神將壁塼)이 동·서 목탑지 기단부에서 발견되어 경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경주 남산 소재 탑곡 마애조상군
부처, 보살, 탑 등 바위에 새겨져
9·7층 마애탑, 명랑스님과 관계

탑곡의 옥룡사가 옛 신인사라는 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신인사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 호국불교의 중심인 명랑의 신인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 사찰이 '조계사'인 것처럼, 종파의 이름을 사찰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대표 사찰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의 불국토 세상이 탑곡 마애조상군에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성 내용이 풍부한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신인사가 당나라의 침략을 막은 명랑의 신인종 중심 사찰이었어야, 탑곡 마애조상군에 이처럼 풍부한 부조가 남은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탑곡 마애조상군은 7세기에 조성된 경주 남산의 초기의 불교 유적이다. 탑곡 마애조상군이 새겨진 바위의 높이는 10m이고 둘에는 총 40m이다. 사면에 부처상, 보살상, 비천상, 금강역사, 좌선하는 스님, 사자 등 총 24구와 5m 높이의 9층 탑과 3.5m 높이의 7층 탑을 조각해 놓았다.

큰 바위의 사면에 유명한 황룡사지 9층 목탑으로 추정되는 9층 탑이 새겨져 있는 곳이 이곳이다. 무엇보다 자장 율사는 황룡사에 9층 목탑을 건립하도록 건의한 승려였다. 자장 율사의 조카이며 신인종의 개조인 명랑의 신인사의 마애조상군에 있는 9층 탑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 자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옥룡암에서 바위로 다가가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에 9층 탑이 있고 오른쪽에 7층 탑이 있다. 그리고 두 탑 중앙 위쪽에는 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천개가 부처님 머리 위쪽을 받치고 있다.

신인사의 마애조상군 정면에 명랑의 외삼촌인 자장 율사가 건의하여 만든 9층 탑이 있는 것이다. 명랑은 신라 중심 사찰 황룡사의 국통이었던 자장 율사의 조카였기에,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황룡사의 9층 탑을 새겨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한쪽의 7층 탑 또한 명랑과 관련된 사찰의 탑이 아닐까 싶다. 〈삼국유사〉에 보면 명랑과 관련된 사찰은 금광사와 사천왕사가 있다. 그런데 금광사면 더 멋질 것 같다.

금광사는 명랑이 살던 집에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조상하였더니, 금의 빛이 난다고 해서 금광사라 하였다. 정면에 조각해 놓은 불상과 7층 탑은 금광사의 황금 불상과 황금 7층 탑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 또한 역사의 사실적 실체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종합하며 그려보는 나만의 즐거움이다.

두 탑 밑에는 사자가 호위하면서 탑을 받치고 있다. 해학적이라 사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무조건 사자구나 하면 된다. 상원사 문수전 앞 고양이로 알려진 것도 사자상이다. 이건 무조건이다.

당에 들어가 도학(道學)을 배웠다. 장차 돌아오려 하는데 곧 해룡의 청으로 인해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수받고 황금 1000냥을 받아 몰래 땅 밑으로 가서 자기 집의 우물 바닥으로 솟아 나왔다. 이에 집을 버려 절로 만들어서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꾸몄더니 광채가 특별하였고 인하여 금광(金光)이라 이름하였다.

왼쪽 바위에는 여래좌상과 보살이 여래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 여래와 보살 주위에 일곱의 비천상이 날아오르고 있는데, 정면을 향해 날고 있는 형상을 그린 것이다. 더 왼쪽의 보리수 아래 선정에 든 스님은 불교가 전래 된 삼국시대 수행하는 모습을 알려준다. 이때는 인도처럼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드는 것이 일반적인 수행의 모습이었나 보다.

오른쪽 바위에는 보리수에 앉아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인다. 불상 위와 옆에 두 비천상이 날아올라 있다. 뒤쪽 면은 편평한 공간이 나오고 더 뒤엔 소나무가 들어서 있다. 이곳도 건물터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되지는 않았다. 바위에는 채색의 흔적이 분명한 삼존불이 감실의 흔적을 보이며 조성되어 있다. 삼존불의 중앙 본존불과 양 협시보살의 좌대는 꼭 허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오른쪽에도 나무가 새겨져 있다. 나무가 울창한 남산의 불국정토를 상징하는 것일까 싶다.

앞에는 우람한 입불상이 있다. 사각의 연화좌대에 불상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연화 좌대에 발등을 조각했는데 볼 때마다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 불상 뒤에도 스님이 그리고 앞 바위에도 스님의 상체가 새겨져 있다. 오른쪽으로 돌면 희미한 신장상이 긴 창을 쥐고 있다. 바로 뒤에는 삼층석탑이 서 있다. 무너진 석탑을 1977년 복원한 것이다. 단층 기단과 1층 탑신, 희미한 동면 문비의 표현, 3단의 옥개 받침과 1단의 별석 탑신 받침이 9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보이게 한다.

탑곡 마애조상군을 조성한 시기는 7세기 중엽과 9세기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마애불상의 양식은 고형이다. 그렇기에 7세기에 마애불상이 조성되고, 9세기 위쪽으로 불사가 확대되며 불상과 삼층석탑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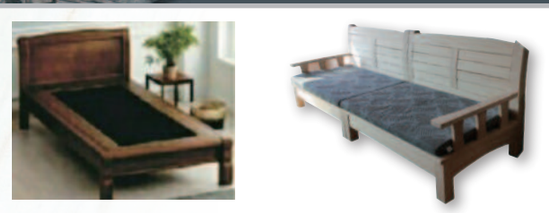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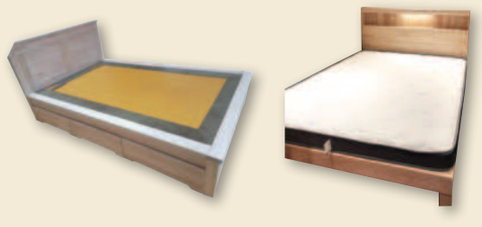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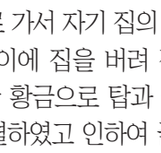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100% 참숯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5호 | 15 | 전면광고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움을 모르나니 슬기로운 이는 먼저 욕심을 버리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평
- 건평 : 6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30억
- 위치 : 경남
- 부지 : 1000평
- 전각 : 대웅전 외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승계협의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千만원 안고 6억원

010-6898-9114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 15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 특징 : 70년샘물, 진주남강수도 겸용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가능.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도심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동 678-3 동진상가 반지하
- 규모 : 60평 이상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삼존불 탱화 등 불구, 집기 일체
- 시설비 절충

010-6274-0828

포 교 원 안 내

- 지역 : 부산 구포재래시장 신협옆
- 상가 : 2층건물50평 옥상포함(단독)
- 법당 : 삼존불, 지장, 신중, 칠성, 영단, 장엄불상200불, 법당범종, 좌대법고
- 시설 : 친견실, 편백객실, 공양간, 수련장
- 주차 : 1층(포함) 유료 주차장운영
- 전세 : 2천/50 시설 : 3천5백 (1,2층포함)

납자 10년째 수행 중이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도심 속 산사에서 법다운 법 전하는 수행납자를 기다립니다.

010-4535-2568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74-93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찰이나 펜션 전원주택의 최적지

모두가 떠나간 빈 공간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한시간 반거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놀산리 520번지

황토주택(30평) 1채 및 황토방 1채 송이버섯이 나는 야산과 야생화 및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냉장저장고로 사용가능한 150m동굴까지 있습니다.

- 총평수 : 약 9650평
- 매매가 : 6억 5천

010-4116-1571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 황등 장원사
- 규모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방4 거실2, 산신각 5평
- 외부 : 5층탑, 미륵불, 약사불, 용탑
- 법당부지 300평(개인) 대지 300평+전400평(캠코)
- 가액 : 1억 5000만원

010-9288-6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포 교 원 안 내

- 보증금 권리금 無
- 월세 60만원
- 시장 옆 2층 25평 코너 남향
- 공양주 상담할분 쓸분
- 기도스님 모심
- 결혼할 분

010-5381-14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범어사역 5분)
- 3층 33평 (보 3백, 월 35만)
- 삼존불법당, 주방, 방, 베란다, 에어컨
- 시설완비 (바닥 전체 도시가스)
- 몸만 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305-4366

사 찰 안 내

사찰 최적 한옥

- 위치 : 합천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해인사ic서 15분 거리
- 대지 : 158평(실평수 훨씬 많음)
- 건물 : 한옥(목조) 25평+황토방 별도 5평
- 가액 : 협의 후 결정

뒤에 산이며 마을 끝부분으로 조용하고 사찰지로서 최적지

010-3824-08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 문전천황 기도도량
- 약 8천평 15억원

054-972-1080

사찰 인근 주택 안내

김제시 금산면 모악14길 43 금산사 인근 주택

- 임야 177평, 대지 195평
- 안채 28.3평, 창고17.6평
- 추가 활용 부지 약 150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5008-112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조정 가능)

010-2847-628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 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 안내

1505호 | 16 | 전면광고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비구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위치 : 경북 성주군

010-6263-2425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주지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퇴마 잘하는 주지스님이나
퇴마 보살 구함

010-8298-38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스님 모심

경남 진주/사천에 있는
사찰 운영하실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보증금 2000만원, 3500평
네이버 황종사 검색하세요

010-8961-5489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밥에 평등할 때 법도 평등하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⑤⓪ 영화 〈전, 란(戰亂,Uprising)〉



영화 〈전, 란〉의 한 장면.

절에 가서 본존불 앞에 닿으려면 여러 문을 지나게 된다. 그 문들은 속세에서 불국정토로 이르는 공간적 이동을 한 걸음 한 걸음 몸으로 먼저 느끼도록 이끈다. 문마다 뜻을 담은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문에서 넘어서야할 가르침이 형상화되어 글을 몰라도 보면서 깨닫게 한다.

여러 문을 지나 본당에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불이문(不二門)이다. 이곳을 통과해야 진리의 세계인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이문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으며, 생과 사, 만남과 이별처럼 다르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라는 불이(不二)를 깨우쳐야 비로소 부처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불이는 분별도 떠났고, 언어의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절대의 경지를 상징하는데 이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전하는 경전이 〈유마경〉이다.

여러 불교경전 가운데 지양교(止揚教) 경전으로 분류되는 〈유마경〉은 가장 독특하고 파격적인 경전으로 꼽힌다. 지양교란 외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교리다. 〈유마경〉은 부처님의 법문을 담은 경전이 아니라 석가모니 시대에 재가신자였던 '비말라키르티'를 음역한 유마힐 거사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경전인 것부터가 파격인데다, 부처님의 십대제자부터 당대 이름 높은 대승의 보살까지 가리지 않고 가차 없이 비판하기에 더욱 파격적이다. 〈유마경〉의 핵심사상인 불이법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상대와 대립을 초월하여 평등하다는 사상이다. 이 세상은 너와 나, 높고 낮음, 태어남과 죽음, 옳고 그름, 귀함과 천함, 사랑과 미움 같은 상대되고 맞서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갈라치기를 벗어나면 부처와 중생, 번뇌와 보리, 유위와 무위, 정토와 지옥, 생사와 열반 등이 다르지 않다는 깨우침은 귀하다.

석가모니 시대나 지금이나 카스트 제도가 엄연한 인도든, 반상귀천을 따지던 조선시대든, 금수저·흙수저 나누는 지금 우리 사회든 세상은 늘 제도로서든 의식으로서든 '계급'을 가르고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왔다. 계급의 구별이 〈전, 란〉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에는 또 오죽했던가. 영화 〈전, 란〉은 임진왜란을 겪기 전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戰)'과 '란(亂)'은 나뉘어 있다. 그냥 붙여서 '전란' 이었으면 조선과 일본 사이 벌어진 전쟁 때문에 벌어지는 난리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쟁은 임진왜란이겠거니 하겠지만, 굳이 쉼표로 나누었으니 앞의 '전'이 꼭 전쟁이 아니라 모든 '싸움'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이고, 뒤의 '란'을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라 '반란'으로 새겨도 좋을 것이다.

그때도 지금도 불평등은 여전한 세상이기에
범동의 도리깨가 내리는 불이법문은 매섭다

사실 우리 역사책은 늘 임진왜란이라고 했지 조선 대 일본의 전쟁으로 부르는 일이 없었다. 왜란이고, 호란이고, 민란이고 그저 왕권을 위협하는 어지러운 사태라고 다 같은 심급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을까? 심지어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동시에 방영되는 〈전, 란〉의 영어 제목 'Uprising'은 '반역, 폭동'이라는 뜻이다. 영화에서 다루는 싸움과 난리의 실체가 '왜란' 말고 달리 있다는 뜻이다.

영화는 턱에서 머리까지 화살로 꿰뚫린 채 아직 숨이 끊이지 않은 채 '대동'을 말하는 정여립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정여립의 난과 임진왜란 3년 전에 벌어진 기축옥사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다. 조선시대 벌어진 정쟁 가운데 4대 사화로 꼽히는 무오·갑자·기묘·을사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낸 기축옥사에서 당시 인구 500만 명이던 조선에서 1000여 명이 처형당하거나 고문받다가, 또는 귀양길에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노비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방방곡곡에 칼바람 피바람이 일었다.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리요'라는 천하공물론(天下公物論)과 '누구든 임금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다'며 왕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선진적인 사상을 가진 정여립은 신분 구별 없는 대동계를 만들었다. 대동계원들은 사람은 글만 배워도 안 되며 무술도 알아야 한다는 정여립의 뜻에 따라 매달 보름에 한 번씩 모여 글도 배우고 활쏘기, 말 타는 법, 칼과 창 쓰는 법도 배웠다. 이때 정여립 본가에서는 술, 고기와 같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모두를 배불리 먹였다고 한다. 이런 정여립을 '조선을 뒤흔든 최대 역모사건'으로 몰려 죽게 만든 것이 영화 〈전, 란〉의 시작이고, 이 일로 벌어진 것이 기축옥사다.

이 기축옥사를 배후에서 조종한 송익필은 조선 중기 8대 문장가에 들 정도였다가 할머니가 안씨 집안 노비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도로 천민이 되라는 판결을 받았다가 권력에 가까이 오른 자이다. 서얼이었던 송익필의 아버지가 당시 좌의정이었던 외숙부 안당과 외사촌 형제를 역모죄로 고발하면서 안씨 가문에 멸문시키고 자신은 정3품으로 벼락출세를 했었다. 그 덕에 엘리트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환천'이라는 신분 몰락을 겪은 송가가 앙심을 품고 왜란과 폭동 전에 반대 당파였던 정여립을 모반으로 몰아 죽게 만든 것이 영화의 시작인 것이다.

가문 몰락의 한을 품고 보복의 기회만 노리던 송익필이 반왕조적 대동사상으로 이상사회를 꿈꾸던 정여립의 대동계를 역모로 몰아 정권 복귀를 노렸고, 그 이후 불어닥친 피바람이 왜군이 침입하도록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시대가 배경인 것이다.

〈전, 란〉의 주인공인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박정민)와 노비 천영(강동원)은 영화적 허구가 아니라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실제로 살고 죽었던 인물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양인에서 노비가 된 천영은 도련님 무과를 준비하는 종려가 실수할 때마다 대신 매를 맞는 게 일이다. 맞다가 죽어 나간 애노비가 몇이나 되는 살벌한 집안에서 무골을 타고 난데다 눈도 밝고 의지도 굳은 천영은 맞아 죽지 않기 위해 종려에게 밤마다 무술을 가르친다. 그래도 안되니 면천을 약속받고 무과 대리시험장에 들어가 장원 급제 어사화까지 안겨준다. 그런 천영을 종려는 '동무'라고 한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약속대로 노비 증서를 돌려받는 대신 천영이 매타작 당하고 광에 갇힌 사이 왜적이 들이닥쳤고, 무신이 된 종려는 선조 피란길 호위로 집을 비우자 종려 집안 노비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다. 자기 아이가 매 맞아 죽어도 조아려야했던 족쇄인 노비문서들을 불태우고서. 선조는 백성들을 죽여서라도 살 길을 만들어내라고 종려를 닦달하고, 종려의 칼은 적군이 아니라 조선 백성을 도륙한다.

조선을 침략한 왜군 앞에서 지배층은 다 달아나고 천영은 의병이 된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동지로서 싸우는 의병들에는 천영같은 노비도 있고, 광대도 있고, 양반도 있고, 백정도 있고, 정규군관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왜란 중에 대동세상을 이루어 서로를 지켜낸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왜군에게 힘을 보탰던 '부왜' 관료들이 고기 먹을 때, 저 혼자 살겠다고 내뺐던 왕이 경복궁 다시 짓겠다며 전쟁에서도 지켜낸 불상까지 중국에 팔아먹을 때, 귀순한 왜군 앞세워 면천을 바라던 의병들의 목을 칠 때, 세상은 여전히 난세다.

불이법문을 일깨우는 범동의 도리깨는 여전한 불평등을 내리치는 죽비처럼, '밥에 평등 할 때 법도 평등하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매섭다. 지금도 불평등은 여전한 세상이기에.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㊶

1.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팔상도(八相圖)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왕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은?

①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④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②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⑤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③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해설 :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이라는 하늘세계에 일생보처의 보살로서 계셨는데, 위없는 깨달음을 위해 인간세계의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시고자 하였다. 이를 마야부인은 태몽으로서 알게 되는데 이는 도솔천의 보살이 상아가 여섯 개 달린 크고 흰 코끼리를 타고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즉 이때 꿈에서 흰 코끼리를 탄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전 도솔천의 보살님임으로 문제에 오류가 있다.

2. 불교의 사대성지(四大聖地)가 아닌 곳은?

① 카필라성 ② 붓다가야 ③ 쿠시나가라
④ 룸비니 동산 ⑤ 사르나트(녹야원)

해설 : 카필라성은 부처님의 모국이자 어린시절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사대성지로 보지는 않는다. 불교의 사대성지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 깨달으신 붓다가야, 초전법륜을 굴리신 사르나트(녹야원), 완전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이다. 이 네 곳을 사대성지로 부르게 된 근거는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이 네 장소를 순례하여 붓다를 기억하는 곳으로 설하셨기 때문이다.

3.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성도지(成道地)는?

① 바라나시 ② 바이샬리 ③ 붓다가야 ④ 쿠시나가라 ⑤ 룸비니 동산

해설 : 붓다가야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가지 장면으로 묘사하는 팔상성도 중 수하항마상이 나타난다. 바라나시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신 사르나트(녹야원)의 근방에 있는 인도지역 명이다. 바이샬리는 도시이름으로 부처님 당시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도시이고 부처님께서도 자주 설법을 하신 곳이다. 쿠시나가라는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곳으로 여기서 부처님은 두 나무 사이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데 이를 팔상성도 중 쌍림열반상이라고 한다. 룸비니 동산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부처님의 친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은 보살을 무우수라는 나무를 붙잡으신 상태에서 옆구리로 출산하셨다. 팔상성도 중 비람강생상이라고 한다.

4. 부처님 당시 기타태자와 수닷타장자의 원력으로 세워진 인도최대의 사찰은?

① 소림사 ② 해운정사 ③ 기원정사 ④ 죽림정사 ⑤ 반야정사

해설 :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의 다른 말로서 기타태자와 수닷타 장자가 합심하여 건립하였고 죽림정사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2곳의 사찰이다. 이곳을 부처님께서 눈여겨 보신 이유는 깊은 산속이여서가 아니라 탁발을 나갈 수 있는 마을과 그다지 멀지도, 그다지 가깝지도 않아 생활에 필수적인 공양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소림사는 선종의 본찰을 말하며 해운정사와 반야정사는 오늘날 한국의 유명한 사찰이다.

5.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부처님이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장소는?

① 룸비니 ② 뉴델리 ③ 사르나트 ④ 붓다가야 ⑤ 쿠시나가라

해설 : 정확하게는 사르나트의 사슴동산, 한자로는 녹야원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할 적에 자신을 떠난 다섯 수행자에게 자신께서 깨달으신 사성제, 팔정도의 가르침을 주시고 이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께 최초로 출가한 비구가 되며, 이때 불교의 삼보가 성립되게 됨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 할 수 있다. 뉴델리는 오늘날 인도의 수도이며 나머지 세 곳의 설명은 위 문제들의 해설을 참조.

6.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친 사람은?

① 찟따 장자 ② 욱가 장자 ③ 빔비사라 왕
④ 수닷타 장자 ⑤ 나쿨라피타 장자

해설 : 빔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수행자셨던 보살일 때, 깨달음을 성취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나라에 와서 머물러 달라 요청했으며, 부처님이 이에 빔비사라 왕이 다스리던 마가다에 오시자 죽림정사를 보시하였다. 찟따 장자는 재가자로서 성자위에 든 유명한 인물이다. 욱가 장자는 〈대보적경〉 〈욱가장자회〉의 주인공이며, 수닷타 장자는 죽림정사와 더불어 유명한 기원정사를 기증한 인물이다. 나쿨라피타 장자는 〈잡아함경〉 「장자경」에서 사리불에게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재가자이다.

정답 : 1. ③ 2. ① 3. ③ 4. ③ 5. ③ 6.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21 니까야 건너가기 ②



▶한줄 요약
아함경과 니까야는 내 번뇌를 없애는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부처가 되는 데에 불교수행의 목적을 두라고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내보시겠습니까?

장대 꼭대기서 한 걸음 내딛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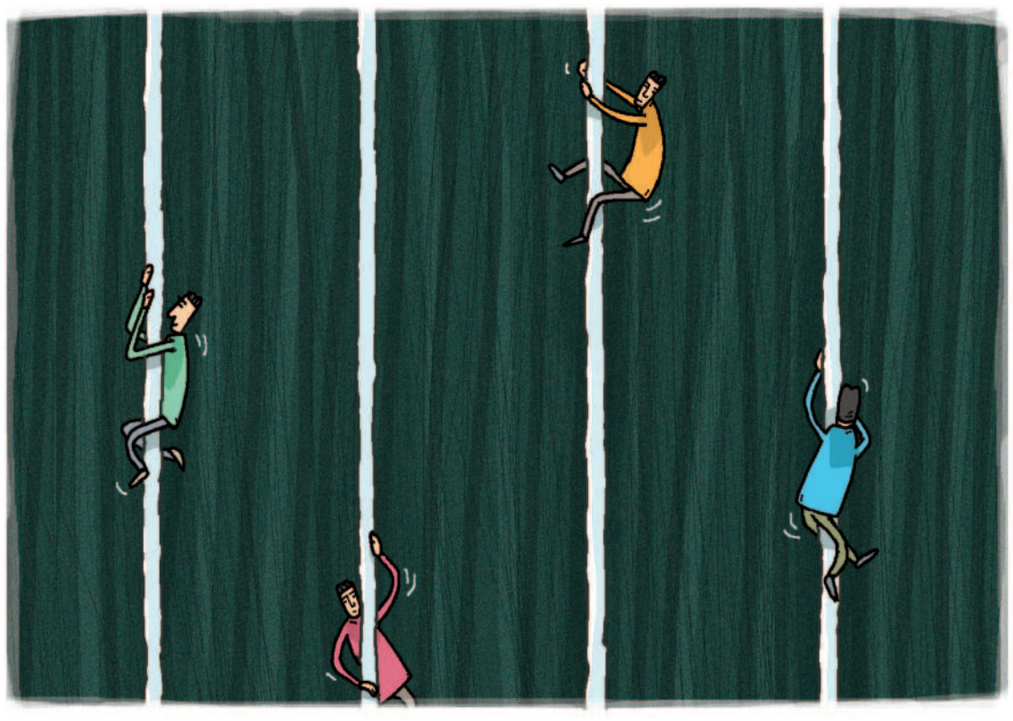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장대 끝에 오르고픈 제자요
부처님, 그 기술 가르쳐주는 스승
대승경전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보살심으로 읽어야 제대로 느껴져

아파트 11층 높이로 올라가기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척이나 되는 장대 꼭대기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보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무문관〉이라는 선승들의 이야기책에 수록된 이 구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경지입니다.

1척(尺)은 대략 30cm입니다. 그러니 백 척(百尺)은 30×100=3000cm 정도 즉 30m에 달하며 우리나라 아파트 11층 높이에 달합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도 다리 아프니 이 정도 높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이의 장대를 아무런 도구의 도움 없이 타고 오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장대를 타고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모를까….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훌륭한 스승이 곁에서 올라가는 방법을 잘 일러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높은 장대 끝까지 꼭 올라가고픈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했다고 하지요. 그는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입니다.

"마침내 해냈다!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나는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을 것입니다. 힘들게 산 정상에 이르러서 "야호"를 외치는 기분일 것입니다. 저 아래에서 제자가 장대를 타고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스승도 대견한 마음이 들 것이며, '이제 저 아이가 내게서 배울 것은 없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래에서 그 제자의 용기를 부러워하며 올려다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무한한 부러움과 존경심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스승의 외침

백 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며 성취감에 흠뻑 젖어 있는 제자를 스승은 잠시 내버려 둡니다. 그 성취감을 만끽할 시간을 주어야 옳지요. 스승은 그렇게 한동안 제자가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행복감에 젖어 있게 내버려 둔 뒤 그에게 이렇게 한 마디 외칩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보거라."

헉!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여기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허공으로 걸어가야 하는 건데 그건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에 몸과 목숨을 걸고 꼭대기까지 도달했다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뎌보라는 스승의 다음 가르침까지도 믿고 따라야 한단 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천신만고 끝에 장대 꼭대기에 올라서 성취감에 젖어 있는 제자라면 스승의 이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발 내딛겠습니까? 아니면 "됐거든요!"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성취감에 젖어 지내겠습니까?

경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장대 끝까지 올라가고픈 제자요, 부처님은 그런 제자에게 친절하고 섬세하게 장대 오르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자, 먼저 손바닥의 땀을 잘 닦고, 이제 두 손으로 장대를 단단히 움켜쥐어라.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 했다. 그렇게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교차해서 꽉 잠그듯 장대를 움켜쥐었으면 이제 몸의 긴장을 풀어버려야 한다.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면 장대가 네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됐지? 그렇다면 이제 한쪽 다리를 들어서…."

수행은 어렵다

하루 만에 이뤄낼 일은 아닙니다. 나는 수도 없이 미끄러질 테고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 들 것입니다. 스승은 이런 나를 옆에서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꾸짖으며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들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장대에 오르는 일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저 힘든 기술을 왜 익히려는지 모르겠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굳이 수행하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한 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욕심 덜 부리며 지내면 되니까 말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가지만 개중에 어떤 이들은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왜 저럴까 싶은 수행을 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 사셨고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구도자가 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하나씩 일러 주시는 부처님 음성(聲)을 들으며(聞) 자기 수행을 이뤄나가던 제자는 뼈를 깎는 정진의 끝에 마침내 스승이 인정한 최고의 경지에 오릅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제 내게서 배울 것이 없다."-이 말은 무학(無學)이란 단어로 정의됩니다.

"그대는 번뇌라는 도적을 완전히 죽였다."-이 말은 살적(殺賊)이란 단어로 정의됩니다.

"그대는 세상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존재이다."-이 말은 아라한, 즉 응공(應供)이란 단어로 정의됩니다.

대승경전, 고개 내밀다

제자가 스승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말 아닐까요? 아직 스승이 살아 있으니 그 스승의 자리에 앉지는 못하지만, 이미 스승만큼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동안 이 지면을 통해 살펴봤던 초기경전인 아함경 또는 니까야는 스승이 제자를 이 정도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를 달래고 꾸짖으며 제자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에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라한이 도달한 그 경지는 바로 해탈열반의 경지입니다. 번뇌라는 불이 꺼져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경지를 얻으려고 제자는 세속의 온갖 부와 명예를 다 저버리고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승에게서 인정받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초기경전의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행이 필요하고 복도 짓고 덕도 쌓아야 합니다. 아무튼 치열한 정진 끝에 아라한이 되어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그 행복을 만끽하며 지내는데 돌연 스승이신 부처님이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거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잘 쉬었지? 자, 이제 일어나거라. 출발하자."

'대승경전'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라한을 수행의 끝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아라한이 되어 자기 번뇌를 없앴다면 또 다른 목적을 향해 새롭게 한 발을 내딛을 것인가.

아라한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경전이 바로 대승경전입니다.

경전이 애매모호한 이유

불교에는 경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전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이 그것입니다. 아함경, 니까야를 제외한 모든 경전은 다 대승경전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법화경〉 〈화엄경〉 〈원각경〉 등.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경전은 제각각이어서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어떤 사람은 〈법화경〉을, 어떤 사람은 〈천수경〉을 소개받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읽은 경전에 등장하는 교리가 어려운 까닭이기도 하고, 이 경전이 지금 범부중생인 자신의 자글자글 끓어 넘치는 속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을 잘 살펴보고 내 번뇌를 잘 다스리는 데에서 만족하겠다면 아함경과 니까야를 충실하게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번뇌를 없앴다면 이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하기 때문입니다. 내 번뇌를 없애는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부처가 되는 데에 불교수행의 목적을 두라고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내보시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나시나요? 그럴 '마음(心)이 난다(發)'면, 즉 발심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보살이라 불립니다. 대승경전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으로 읽어가야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니까야를 훌륭하게 건너왔습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일체를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큰스님 여러분,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대중 예, 아끼겠습니다.

큰스님 둘째, 불투도계이니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대중 예, 가지겠습니다.

큰스님 셋째, 불사음계이니 일체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시 마음을 청정케 하겠습니까?

대중 예, 하겠습니다.

큰스님 넷째, 불망어계이니 오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대중 예, 살겠습니다.

큰스님 다섯째 불음주계이니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않으며 자기와 남을 위해서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대중 예, 지키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여러분은 큰스님을 증사로 모시고 오계를 수지하였습니다. 세세생생 금강석 같은 신심으로 물러섬이 없는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일로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연비를 하겠습니다.

큰스님 수계에 대해서 법문을 하면 그것이 끝나고 바로 해야지.

사회자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큰스님 여러분이 이것을 말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모습을 벗고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을 때에 바로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십시오.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표가 있어야 들어가듯이 이것이 증명표가 됩니다. 우리가 헛되게 그냥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했지만 자동적으로 정수에 입력이 된다고 그랬죠. 살아나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일거수일투족 다 입력이 된다고요. 입력이 돼서 스스로서, 자기가 따귀를 때렸으면 자기가 따귀를 맞게끔 되는 원리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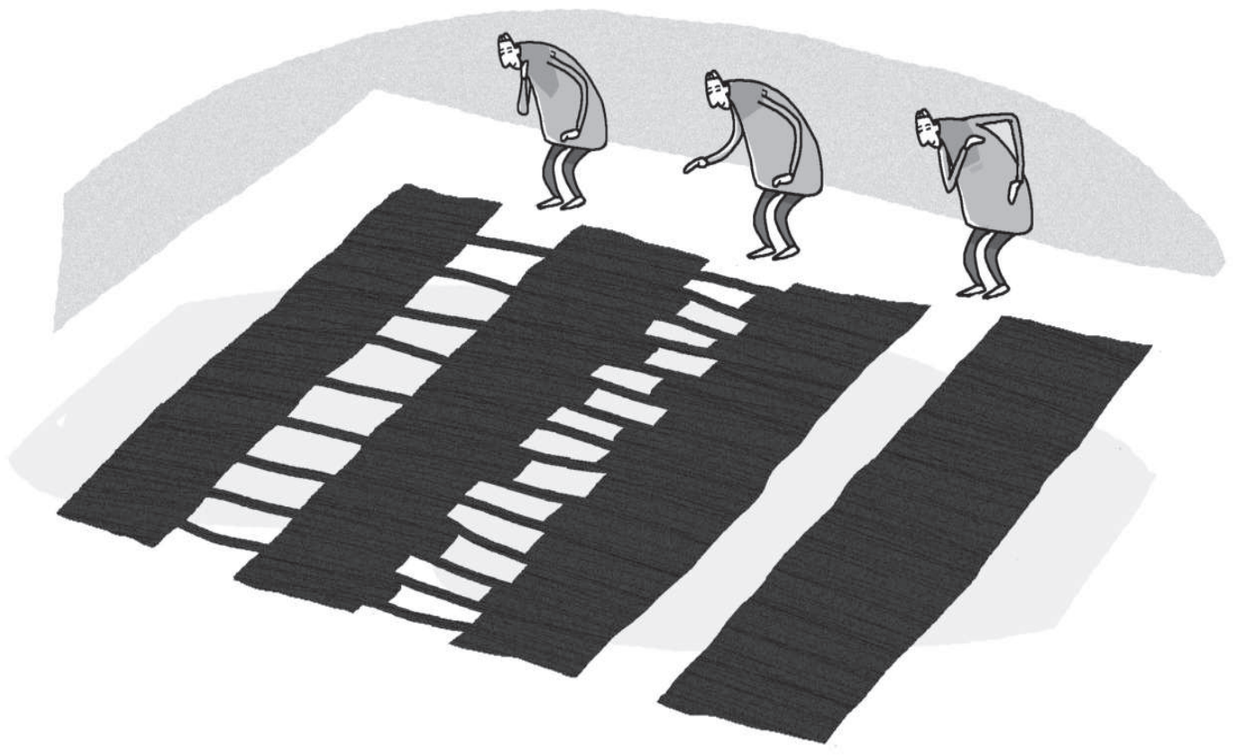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럼으로써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남을 둘로 보지 말라. 내 몸과 같이 아껴라.' 이런 말이 그냥 말로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똑같이, 그 삶의 문제가 다 같으니까요. 이 '탐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정결하지 못합니다. 한 생 살아나가기에 바쁜데 남의 것까지 탐을 낸다면 그 탐내는 것만큼 고가 옵니다. 그러니 탐내는 것만큼 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불사음계이니'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내 몸속에 있는 모두를 이끌고, 내 몸뚱이 하나를 이끌고 올바로 가기도 힘드는데, 내 부인을 놔두고도 남의 부인을 생각한다거나 이런다면 파장이 생기게 되고 자식들과 가정이 모두 화목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얘깁니다. 그냥 말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키게 되면 아주 선선하게 이 일체 우주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삼라만상 전체가 다 그 눈에,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마는 심안으로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마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과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도 이렇게 안으로 끼웠다 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갖다가, 있는 친척에서라도 갖다가 이쪽 없는 사람을 주는 데는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자비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람 살아나가는 데 융통성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젓국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벽을 치면 벽 친 대로 보거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 달이 저렇게 밝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이 손가락을 보고 말을 해요, 달을 보지 않고. 그와 같은 말이죠.

'불망어계이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을 또 낳습니다.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살이가 처참하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이것은 거짓말뿐 아니라 이간질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이 살려면 서로가 서로를 덮어 가면서 서로가 좋은 말로 이어 가면서, 친척이라 할지라도 친척을 끊어 놓는 게 아니라 이어 놓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모두가 좀 못된 말을 했더라도 좋은 말을 하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가서는 저쪽 얘기 좋게 말을 하고 이러면 서로 좋아지죠. 이것이 가정 화목이요 또는 사회 화목이란 말입니다.

'불음주계이니' 이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음식도 그렇고 좋은 선약도 그렇고 내 체질에 맞게 먹어야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약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 오장육부를 다 잘못되게 하고 나중에는 병이 들어서 가정까지 파괴를 시키고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부인 또는 남편,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가정을 그냥 파괴를 시키면서까지 음주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잔 두 잔 잡수는 거야 약주로 되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갔다, 지나치게 들어갔다 하면 망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술 먹어서 망주가 되는 반면에,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가정을 정말이지 지키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신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자식들까지도 분수를 지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는 반면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떠한 계율이든지 다 함이 없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계만 잘 지키신다면 죽어서 가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이 오계를 받고 진실히 잘 지키는 분에 한해서 얘깁니다. 진실히 지키면 지키는 대로 나라에서 표창받듯, 즉 말하자면 도리천에서 표창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에게는 벌써 자동적으로 그 마크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나무 때기에, 주장자죠. 주장자에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 마크가 달려 있을 때는 어딜 가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숭배를 받고요. 그 모든 보살들에게도 숭배를 받고요.

그러니 그렇게 숭배를 받을진대 나중에 생사천으로 들어갈 때는, 즉 말하자면 우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람으로서 일체를 다 쥐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 19면에서 계속

리가 죽으면 우리 이 몸뚱이 속의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죽으면 그, 영계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령들이 각 모습을 해 가지고, 크게 모습을 해 가지고 앞을 가리고 있어요. 날 두고 어딜 가느냐고.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도환생을 같이 하니까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쭉 모두 늘어져 있으니 발을 들여놓고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엔 강을 못 건넙니다. 오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의식들이 모두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것만 알거든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 못 한 사람에 한해서 얘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생사천으로 가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다시금 차원에 따라서 생산이 돼야, 이 세상에 큰 회사를 해서 많은 중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어버이가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뭐, 어느 게 될 수 있느냐. 선신이 되겠느냐 또는 선관 선녀가 되겠느냐. 이런 자기의 소원대로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강을 못 건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우리 몸이 공해서 내가 한 사이가 없이 지금 산다. 내가 보는 사이도 없고 듣는 사이도 없다. 길을 걸어갈 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 그와 같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든 게 그렇게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랬죠? 그랬는데 그걸 몰라서 살아생전에 강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만 알거든요,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그러니까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죠. 자기도 없는데, 체가 없는데 뭐 빠질 게 있다고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까, 글쎄.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강물에 빠져 죽는다는, 살아생전에 살던 착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내가 그대로 영령인데 어떻게 또 강이 있어서 강을 못 건너갑니까.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다 버려야 훨훨 그냥, 내가 없는데 강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셋째, 우리가 불이 있으면 타 죽는다는 인식을 합니다. 불이 활활 일어나는 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타 죽는다는 생각만 했지 자기 형체가 없다는 거는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불 문이 있는데 그 불 문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불 문을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타 죽을까 봐. 지금 살아생전에는 불구덩이가 있어서 내가 가면 불이 붙고 형체가 있으니까 타 죽지만 형체가 없는 마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물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땅속을 들어가든지 걸리는 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미리 살아생전에 그것들을 모두 아시고 있어야 죽어서도, 무의식중에도 '아, 내가 없지.' 그래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처에, 모든 도리천에 큰 일체제불의 마음, 그 자체의 보살들이 전부 등장을 하죠.

그래, 여러분을 그 마크 달린 걸 보고서 좍좍 전부 갈라서 판결을 보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보면, 지금으로 치면 살아생전에는 판사나 마찬가지죠. 산신, 독성, 이런 분들, 지금 독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분들이라든가 주산신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주해신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 판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살아생전에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정신을 차린다면 그런 거니 저런 거니 다 그냥 훌쩍훌쩍 넘어갈 수 있을 텐데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대를 받고 참 존중받게 되고, 이 세상에 다시 나게 되더라도 위대하게 태어나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한 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불순하게 사신다면 그거 누가 다 대치를 합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 뺏어가는 것도 없고.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꼭 대치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업이나 과보나 영계성이나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려면 그걸 만든 자체 내에서만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에서 꼭 컴퓨터 입력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보는 거, 이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심안으로 보는 거. 심안의 귀로 듣는 거. 신족통, 또 이거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거. 타심통, 또 남의 마음을 뚫어지게 아는 거. 또 숙명통, 어디서 내가 왔는지 그걸 아는 거.' 그 다섯 가지가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만이 바로 누진에서 자유롭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건데 자기 육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오계 속에도 결부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이것이 결부된 자체, 왜 오계라고 했을까 이런 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둥근 한 통 속에서 산다면 그것이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오계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책에도, 경전에도 써 있겠지만 지금의 현재에 알아들으시기 쉽게 그냥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분명코 우리가 입조심하고 항상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또 분수를 지켜서, 성나시더라도 분수를 지켜서 말씀하고 식구들을 괴롭히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거 탐하지 말고, 음욕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거를 탐하지 말라 이런 얘깁니다.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거를, 내 몸뚱이도, 가지고 살던 이 집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빈손 아닌 빈손으로 갑니다. 나올 때도 빈손 아닌 빈손으로 나왔고요.

이 모두가 사람 사는 도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이 정수에 입력이 잘돼서 죽는 날에 회향을 잘할 수 있을까 한 겁니다. 이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고 소화가 잘돼서 '아이, 참 잘 먹었다.' 하는 게 회향과 같은 겁니다. 그 음식을 먹고 체해 가지고 만약에 요동을 부린다면 그게 회향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화목하게 끝났으면 회향이 잘된 거고 화목지 못하게 끝났으면 바로 회향이 잘못된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일생 동안을 살아나온 그 회향인데 끝에 가서 '어이, 그 사람 그거 그러더니 잘 죽었어.' 이렇게 회향을 해야 됩니까? '아이, 그 사람, 아까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죽었어.' 이렇게 회향을, 끝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사처에 가더라도 '아, 당신은 참 위대해.' 하니까 차원 높게, 아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줘서 내보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반복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하고 삽니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의 정신세계를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신세계로 말미암아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즉 말하자면 댁의 육신과 정신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댁의 육신이 올바르게 살려면 정맥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어디에고 그저 살 만하면 파괴가, 이건 했다 하면 틀려 넘어가고 꼬여 넘어가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죠. 만약에 바퀴에 심봉이 딱 꿰져 있다면 그 심봉을 의지해서 바로 바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 심봉이 제대로 끼어 있지 않다면 바퀴가 이탈을 하게 되죠. 그거와 꼭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죽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진리며 이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지, 우리들의 법이 없고 부처님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남의 말만 기억하고 뭘 한다 하고 못 알아듣고 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말을 해서 그냥 귀신을 믿고 타의에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귀신을 믿는 거지, 내가 귀신이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믿습니까. 정당한 사람이라면 정당한 사람으로서 일체를 다 쥐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예가 있었죠. 오늘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스님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절에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쌀을 얻으러 왔다고 봅시다. 그 두 가마쯤 있는 거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 스님네들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어도 그냥 싹싹 긁어서 다 퍼 준 겁니다.

왜 그렇게 다 퍼 줬을까요?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에 당장 공양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 퍼 줍니까? 그릇을 비우면 반드시 또 그릇에 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샘물은 퍼내면 샘물이 또 솟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항아리에 그냥 물 모아 놨다가 그냥 퍼 쓰면 항아리가 비죠. 비면 없다고, 살 수가 없다고 야단법석들을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신계를 공부 안 해서. 샘물이라는 건 정신계에서만이, 참나의 뿌리에서만이 그 샘물이 나오는 거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 쌀도 없는데 다 줘 놓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아홉 시에 취침 종을 치니까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짐차 소리가 털렁털렁 털렁 나더니 쌀 세 가마를 갖다가 그냥 털썩 갖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지 마세요. 이 쌀뿐만 아니라 일체 살아가면서 내 그릇이 비고 내 마음이 비었다면 스스로서 거기 없으면 채워지고 없으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절이 한국에서도 부자 절이라고 항상 그럽니다. 그릇에 담아 놓지 않고 남한테 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봐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를 자랑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좀 한 찰나를 아시라고요. 이 정신계의 한 찰나라는 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중세계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그 때문입니다.

우리모두가 지금 죽고 살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진리이며
이 자체가 법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6월 23일 국외지원 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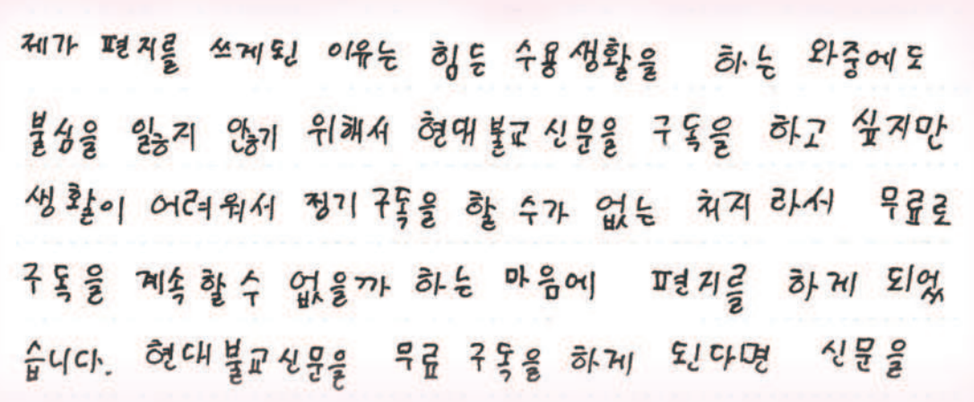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㉖ 출가 환속 반복한 제자를 수용한 부처님

믿어주는 마음, '자기유능감' 키운다

'반복된 좌절감'. 아이에 대해 설명하는 가희(47세·가명) 씨의 심정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이다. 딸아이의 반복된 가출과 도벽으로 경찰서를 오고 간 가희 씨는 "지칠 대로 지쳤다"는 말과 함께 주먹을 꽉 쥐었다. "부끄러워서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가희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출을 반복하는 가희 씨의 딸 수빈(17세·가명)이의 심정도 '반복된 좌절감'이 원인이었다.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과 낮은 자존감을 메우듯 아이는 소소한 도둑질을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버려질까란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다.

'반복된 좌절감'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결핍된 환경을 극복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체념의 결과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심할 경우는 삶을 포기하는 행동과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미래를 위한 학습이나 과제 수행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인내와 노력도 사라진다. 즉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기고 모든 일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감을 경험할 뿐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가희 씨는 수빈이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바로 앉아라!' '똑바로 걸어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손을 모으고 인사해라' 등 일거수일투족을 고치려 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그녀의 이상한 신념이 원인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모든 훈육은 수빈이를 위축 되게 만들었다. 엄마 앞에서는 얼어버린다는 수빈이는 언제나 부족한 아이가 되어 버렸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멍청해서 엄마가 원하는 그런..."

수빈이는 혼란스러워했고 모든 잘못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심리학자는 자기유능감(자기효능감)을 강조한다. 자기유능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믿는 것으로 어떤 일이든 시도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란 신뢰감이다. 성공을 체험하고 과제를 해결해 자신감을 얻는다는 단순한 원리이지만 사실 이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처음에는 천천히 쉬운 과제부터 적응을 시키고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며 성공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모와 상담자 그리고 교사 등 주변 보호자의 인내와 믿음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가능성을 먼저 믿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파괴적이고 인생이 절망스럽게 보여도 삶을 이끌 주체는 청소년이며 인생에서 좋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란 궁극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청소년이 그릇된 선택을 해도 수용하고 경청하고 안아줄 수 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탈하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믿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자기유능감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된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

여섯 번 출가환속 반복한 찟따핫타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음 버팀목 돼

〈법구경〉에 보면 여섯 번이나 환속을 반복한 찟따핫타 장로가 나온다. 찟따핫타 장로가 처음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 숲으로 들어갔을 때이다. 소를 겨우 찾고 난 뒤 배가 너무나 고팠던 찟따핫타 장로는 사원에 들어가 음식을 받아먹는다. 당시 부처님이 계셨을 때 다양한 음식이 풍부하게 들어온 것을 보고, 바쁘게 일하는 자신의 삶보다 비구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출가 후에 그는 음식을 힘들게 탁발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환속을 결심한다. 환속 이후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생각을 바꿔 다시 출가를 결심한다. 그는 이렇게 여섯 번이나 출가와 환속을 반복했다.

출가와 환속을 반복하다 보니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는 숲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농기구를 던지고 다시 출가를 결심했다. 그 때 집에서 침을 흘리며 입을 반쯤 벌리고 자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부풀어 오른 시체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애욕을 알아차린다.

찟따핫타 장로는 '몸은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괴로운 것이다'는 깨달음을 안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와 사원으로 달려갔다. 사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는 수다원과를 얻었고 다시 출가를 요청해 어렵게 출가를 허락받는다. 출가한 후 며칠이 지나 사무애해를 갖춘 아라한이 됐다.

당시 함께 수행하던 도반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 머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찟따핫타 장로의 아내도 며칠 후면 그는 돌아올 것이고 다시 출가한 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그를 무시했다. 우리도 만일 찟따핫타 장로의 반복된 출가와 환속을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수행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시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은 선업과 악업을 모두 초월한 아라한이 되었다."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부처님의 씨앗으로 보이는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혼돈의 시간 속에 자신을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들을 꽃 피우게 할 것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건기삼매경

⑳ 인체 역학의 기적, 고관절

고관절 약하면 신체 균형 무너져

고관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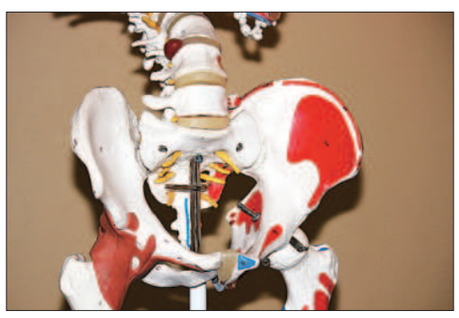
골반, 즉 엉덩이는 중요한 3개의 매우 다른 기능들과 연관이 있다. 첫째, 골반은 다리와 몸통의 많은 큰 근육들을 위한 공통의 부착 지점을 제공한다. 둘째, 골반은 걷거나 앉고 서 있을 동안 상체와 몸통의 무게를 다리로 전달한다. 셋째, 골반저의 근육들과 결합조직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골반은 배변, 소변 그리고 생식기능과 연관된 기관들을 지지하게 된다.

그중에서 골반관절은 엉덩이뼈인 골반의 컵 모양으로 생긴 비구 부분과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의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다. 둥근 공 모양의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과 소켓 모양의 골반 뼈로 이루어진 안정적 구조로 체중을 많이 지탱하여 관절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보행할 때 체중의 3~4배까지 힘이 가해지고 뛸 때는 체중의 10배까지의 하중이 실리기도 한다.

앉기, 서기, 걷기, 달리기, 들기를 포함하여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움직임의 대부분은 엉덩이 관절의 기계적 역동성 덕분이다. 고관절은 두 개의 뼈 사이 조직의 종류에 따라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비구와 대퇴골두 사이 관절면에는 연골과 지방이 있어 관절이 움직이는 데 완충 작용을 해주는 윤활관절에 속한다. 아래로 연결된 인대는 고관절과 대퇴골을 강하게 붙잡아 서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모양이 마치 공처럼 둥근 대퇴골의 골두와 이 볼 부분을 감싸고 있는 골반골이 소켓 모양으로 되어 있어, 볼-소켓 관절이라고도 한다. 이 볼-소켓 관절의 표면은 연골로 덮여 있고, 이 연골은 쿠션의 기능을 하여 관절에 주어지는 압력 또는 힘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관절은 관절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관절막의 내면은 관절액을 분비하는 활액막으로 덮여져 있다.

고관절은 큰 근육들과 힘줄들에 의해 둘러싸여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의 고관절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날이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공이 소켓 속에서 미끄러져서 부드러운 관절운동이 일어난다.



고관절의 운동역학

고관절의 주요 기능은 몸과 몸통의 무게를 동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축 골격에서 하지까지 힘과 하중 전달을 촉진해 가동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고관절은 앞뒤, 전후 그리고 좌우 3개의 주요 축에서 움직임을 허용하며, 이 3개의 축은 모두 서로 수직이다.

고관절은 인체의 중심에 놓인 관절 위치 때문에, 상체의 바닥관절이면서 하체의 꼭대기 관절, 즉 천장관절(SI joint) 역할을 모두 한다. 몸의 상하체를 모두 연결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절보다 크고 무거운 운동 역학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흉쇄관절과 비교해 천장관절은 매우 크며 견고하다. 매우 가파른 관절면과 천골의 위치는 기울어진 구조를 하고 있으며, 복잡한 천장관절을 인대로 보강하고 있다.

약할 때 문제점

고관절의 스트레스는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 중 하나가 한계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질 때 발생한다. 누구나 일상적인 작업만으로도 고관절 부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상은 스포츠 활동 중에 일어난다.

고관절 염좌는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 부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빈번한 운동을 하다 넘어지거나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 고관절 이상과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고관절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이나 힘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약해져, 고관절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관절이 약하면 보행, 자세 정렬, 관절 가동성, 유연성 및 신체 균형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무릎과 엉덩이 그리고 허리통증이 유발된다. 이러한 증상은 관절이 약한 고관절 근육을 보상하려고 무릎과 엉덩이, 그리고 허리 부분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관절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운동 전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운동을 빨리 하려 했을 때 고관절 부상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컴퓨터 시대에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하고 운동을 하지 않다 보면 고관절 굴곡근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엉덩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해도 근육이 퇴화하고 약해져서 근육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

강화하기 위한 방법

천장을 보고 누워서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린다. 양 무릎을 굽혀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 엉덩이, 허벅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15초 유지, 5초 휴식을 적당한 횟수로 반복한다. 이때 허리가 아프면 그만둔다.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있다면 시도하지 않는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생존으로 명상 찾는 교사 위해 만든 명상프로그램, 보급 기원

올해 2월 말에 장안중, 장안제일고 이사장님이 방문을 했다. 법회 장소 답사 차 오신 것이었다. 그때 차담을 하다가 그 학교가 17년 동안 학생들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쳐오고 있는데 강사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동안 연구해왔던 지혜소통카드를 선물로 준비해서 갔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전하고 있다.

학교를 가게 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명상을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괴물로 변해가서 생존으로 명상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도량에서 5월에 130명 정도의 교사들이 참석하는 부산교사불자연합법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1년 동안 수업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달 동안 밤잠을 줄여가면서 연구에 매진했다. 그렇게 해서 법회 식순에는 없었지만 간청을 해서 식전행사로 명상체험을 선보일 수 있었다.

조금 엉성했던 프로그램은 발전의 계기를 만나게 된다. 8월에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팀과 외국인 대상 명상을 의논하게 되었는데 1~8일 중 며칠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왔다.

모두에게 이익하게 하라는 마음을 내다 보니 8일 동안 진행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8일 계획이 그림처럼 그려지면서 순식간에 구성됐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프로그램은 3일 간 진행됐다.

그런데 이때 마련된 8일 명상 프로그램은 날개를 달고 짜임새 있는 32차, 1년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됐다. 전체적으로 마음을 굴려쓰는 지혜를 담았다. 8가지 주제는 △마음의 원리 △배려가 담긴 말 △몸 돌보기 △마음의 길 따르는 하루 △자유로운 인간관계 △진짜 사랑 △빛나는 씀씀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다.

또한 모든 주제에는 체험 활동과 그림책이 있어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림책을 준비할 때 한 표정을 그리는 데만 해도 수십 번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따뜻하고 당찬 표정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진다는 피드백을 해 주기도 한다. 내면의 맛을 본 청년회 법우들과 신도들은 이 법을 전하고 싶은 원력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에 강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혜와 정성이 깃든 이 프로그램을 한 초등학교에서는 곧 바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11, 1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지혜롭게 마음을 굴리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 학교 곳곳에, 세계 곳곳에 둘 아닌 도리가 전해지는 꿈을 꾼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⑩ 원효 대사의 오도송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세상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모습이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心生故種種法生)
마음이 사라지니 부처를 모신 감실과 귀신의 무덤이 둘이 아니로다(心滅故龕墳不二)
세상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 모든 현상과 사물은 사람의 생각이 만든 것이니(三界唯心萬法唯識)
마음 밖에는 진리가 없는데 따로 무엇을 어디서 구하랴(心外無法胡用別求)

원효 대사(元曉, 617~686)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승이고, 사상가이다. 해동(海東)의 석가모니라 부른다. 그의 저서가 100여 종 240여 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존하는 저서는 19부 22권뿐이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십문화쟁론〉은 중국에서 그의 사상을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른 보살의 저술에 붙이는 '론(論)'이라 높여 불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로 평가받는 현수(賢首) 법장(法藏, 643~712) 대사(중국 화엄종의 완성자)는 〈화엄경 탐험기〉와 〈대승기신론 의기〉를 저술할 때 원효의 〈화엄경소〉와 〈대승기신론소〉(일명 해동소)가 상당 부문을 인용하였다. 그래서 원효는 중국, 일본, 인도에까지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 사상계의 한류스타가 된 것이다.

원효 대사가 생존한 당시에는 중국의 선종불교가 전래되기 전이다. 따라서 원효의 오도송은 선종의 선사와 형식과 내용이 약간 다르다. 선적인 오도송이 아니라 교학적인 오도송이다. 조사어록보다는 불교 경전에 의거하여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고 있다.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신 일화는 인구에 회자하여 일본의 사미승들도 아는 이야기이다. 시의 형식은 칠언고시이나 운율은 무시하였다. 기구와 승구의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의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부처를 모신 감실과 귀신굴(무덤)이 둘이 아니로다"는 〈대승기신론〉의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心生則種種法生)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법이 사라진다(心滅則種種法滅)"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불교교리의 핵심인 마음의 세계를 인용하여 자신이 무덤 속에서 자면서 깨달은 일화를 읊고 있다.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내 마음인 중생심 속에 있으니
佛子, 부처의 마음으로 사는 人

무덤인 줄 모르고 잠을 잘 때는 호텔처럼 편안했는데, 아침이 되어 그곳이 무덤이란 것과 지난밤에 마셨던 시원한 물이 해골바가지 물이란 사실을 알고 토해내면서 더럽고 깨끗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진실로 물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깨달았다.

전구와 결구인 "세상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 모든 현상과 사물은 사람의 생각이 만든 것이니 마음 밖에는 진리가 없는데 따로 무엇을 어디서 구하랴"는 〈화엄경〉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一切唯心造)", 유식학의 핵심인 "오직 본질적인 실체(心法)인 마음만 있을 뿐 객관 대상(경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용해한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요체인 '마음(心)'의 세계를 원효의 오도송보다 명쾌하게 밝혀놓은 조사어록은 없다. 내 마음이 밝으면 부처의 세상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대낮 백주에도 본래 없는 귀신이 나타난다.

원효는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내 마음인 중생심 속에 있다"고 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 마음이 생각하고 인식한 세상이다. 불자(佛子)는 부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누가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나

개신교계가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일원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기도회를 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불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와 정치권에 자신의 세(勢)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도회를 앞두고 지난 8월 29일 개최한 교단장·총무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목사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비진리,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목사는 "현장과 온라인 등 200만 명이 모여 외치면 누가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목사들의 발언들은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카롤린 엠케의 저서 〈혐오사회〉에 따르면 사회에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부류는 소위 '사회적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이들은 항상 사회적으로 묵인된 폭력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름을 이유로 집단적 편견을 덧씌워 구조적인 폭력을 행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도리어 종교는 다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소도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카롤린 엠케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차별을 감지해내는 일, 사회적 공간이나 담론의 공간에서 추방된 이들에게 그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다."

예수는 자신의 이름을 팔아 혐오와 갈등을 만드는 작금의 제자들을 보면 과연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할까. '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추수와 수륙재, 그리고 나눔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한 해 농사 잘 마쳤음을 감사하며,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시제(時祭)이고 천신제(薦新祭)로 사계절의 가운데 달 보름날에 주로 올리는 사시제(四時祭)로 발전하였다. 이 같은 모습은 동서양의 문화권에 비슷하게 나타나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주로 열리는 수륙재는 사시제나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일까. 그 각각의 본질과 상관없이 제사나 공양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나 공양을 통해 신불(神佛)이나 조상님께 한 해 농사를 원만히 마무리하였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나 초청 대상이 천지신명이나 조상님께 한정되는 듯한 양상으로 진행되면 수륙재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하기 어렵다. 육도에서 고통받는 사생(四生)을 구제하는 것이 수륙회의 목적인데, 수륙재의 초청 대상이 지나칠 정도로 신불이나 조상신 또는 고혼(孤魂) 등 비인(非人)에 치우치면 수륙재의 본래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육도사생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있겠으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구제가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부 수륙재에서 다슬기를 방생(放生)하거나 관내의 불우이웃이나 고독한 노인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륙재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수륙재 원래 명칭은 '무차대회'
승속 구별없이 음식 나눔 기인
秋수륙재, 대동제로 열어보길

수륙재의 원 명칭은 무차대회(無遮大會)이다. 스님이나 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는 재회(齋會)라는 뜻이다. 이를 '의식'이라고 주로 이해하나 재회는 음식을 승가에 올리는 모임이다. 음식을 베풀면 공덕이 큰데, 그중에서도 착한 사람, 착한 사람보다 출가자, 스님보다 아라한, 아라한보다 깨침을 얻은 붓다께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을 청해 공양을 올리는데, 재회 가운데 가장 큰 의례가 수륙재이다.

수륙재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희사해서 연다. 수륙재의 핵심적인 부분인 음식을 베푸는 시식(施食) 의식은 아난존자가 '자신의 수명 연장을 위해' 아귀에게 시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륙재의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 예전의 수륙재는 국가적인 의례로서 국왕 등 왕후장상이 재주로 참여하여 열었는데, 이때의 소원은 '국왕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 등을 위해'서이고 신불과 무주고혼 등에게 제사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해서 후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해 배고파 떠도는 고혼을 구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수륙재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수륙재의 핵심은 음식 나눔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했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도, 현대는 음식을 나눠주는 재회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추수의 계절 가을에는 어떤 수륙재가 열려야 할까. 고통 받는 이들의 구제를 위해 개최한다는 수륙재 본래 목적을 살려서, 현재의 제사나 공양 같은 의식은 최소화하고, 외롭고 힘든 산 자들의 벗이 되어,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위로하는 축제의 한마당인 대동제로 행해지는 것이 어떨까 한다.

디지털 고립서 벗어나려면…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으로 현대인은 과잉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필두로 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주는 편의성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하며 통제하는 디지털 경제의 숨은 원리가 작동한다. 바로 잠금 효과(Lock-in Effect)인데, 디지털 속 인간을 집착과 고립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물쇠에 비유할 수 있다.

잠금 효과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선택을 제한해 기존의 것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잠금 효과는 주로 두 가지 요인, 즉 매몰 비용과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강화된다.

매몰 비용(Sunk Costs)이란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너무 커서 그 플랫폼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특정 플랫폼 계정에 많은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친구들을 축적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떠나는 데 따르는 심리적, 시간적 비용이 커져 쉽게 이동할 수 없다.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는 특정 플랫폼에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용자를 해당 플랫폼에 유인하게 되며, 이는 플랫폼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결국, 매몰 비용과 네트워크 효과가 결합되어 사용자들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며,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힘든 고착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과잉 연결 시대 사는 현대인들
현실감 복구하려는 움직임 커져
마음 성찰로 디지털 고립서 탈출

잠금효과는 단순히 기술적 구속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까지 스며들어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을 증대시킨다. 셰리 터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소셜미디어는 인간 간의 깊이 있는 관계 형성보다는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상호작용을 부추기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만, 정작 연결과 교류의 결핍에 갇혀 있다.

디지털 세상에 대한 피로감 탓일까.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물성 매력'이 주목 받고 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리적인 사물의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고 추구하는 현상이다. 가상세계와 디지털 콘텐츠가 일상화된 시대에 오히려 촉감, 질감, 무게감과 같은 실제 사물의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이다. 디지털로는 접근할 수 없는, 손으로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의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다.

끊임없이 스크린을 보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현실감을 복원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욕구가 커져가고 있다. 과잉 연결과 디지털 고립이라는 초연결시대의 역설에 직면하게 된 지금,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잃어간다. 디지털 고립과 집착의 잠금 장치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마음 안을 들여다 볼 때이다.

社 說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출범에 부쳐

'산지승원'으로 발전돼 온 한국의 사찰은 대부분 많은 숲을 갖고 있다. 사찰림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사찰림은 사찰의 풍치 보전과 경제적 운영을 목적으로 활용됐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사찰 소유로 자리 잡게 됐다.

사찰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출범 이후 사찰림 현황을 파악한 뒤, 연구·교육·사업·협력 분야에 걸쳐 사찰림이 가진 전법수행·공익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조망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림 실태 조사 및 DB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 컨설팅 △사찰림 활용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찰림 관련 현안은 많다. 당장 사찰림은 사찰 소유의 사유림임에도 공익용 산지로 구분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찰 전각의 보수 등을 이유로 사찰림의 나무를 베고자 할 경우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령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사찰림의 수종은 침엽수에서 탄소 저장력이 뛰어난 활엽수림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 정책 방향 수립, 생태적 보전 방안, 교육 및 보건적 활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찰림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문화자원으로 발돋움시키길 기대한다.

정부, 의료계 이제는 손잡을 때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불거진 의정 갈등이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종교계가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이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의료 단체 대표와 만나 의료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종지협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은 "정부안에 대하여 상충되는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검토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계 대표들도 "좋은 중재안을 기대하겠다"고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갈등과 진통을 반복하며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자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이탈에 항암주사를 맞는 데, 6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예약했던 수술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시술을 받지 못한다니 이것이 진정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됐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종교계의 중재안이 마련된다면 정부도 의료계도 한 발짝 물러나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0월 3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3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3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영캠프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깊은 뜻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셨으며,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 스님께서 이 염원을 이어받아 영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영캠프는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학생기획위원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입니다.





일시 2024. **11. 12.** 화 오후 **3**시 - **6**시

장소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문무관**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